가계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법

2026-11-24 만듦

차례

1부 · 가계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것

1장. 부부 가계부 — "우리,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에서 시작됐다
2장. 부부 용돈 — 급여처럼 주고, 어디에 썼는지는 묻지 않는다
3장. 부부 돈 관리 규칙 — 말로 하던 약속을 문서로 만든 이유

2부 · 우리 집 회계기준을 직접 만들었다

4장. 복식부기란 — 가계부로 배우는 차변 대변과 다섯 계정
5장. 복식부기 가계부 회계기준 — 도구만으로는 장부를 쌓을 수 없다
6장. 복식부기 가계부, 자동차 구입은 어디에 적나
7장. 복식부기 가계부 고정비 변동비 구분 — 또 나갈 돈인가로 나눈다
8장. 복식부기 가계부 서식 — 부부가 실제로 쓰는 계정과목 표

3부 · 막히는 자리들

9장. 복식부기 가계부 재무상태표, 처음 만들 때 자산·부채 적는 순서
10장. 복식부기 가계부 주담대 —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는 법
11장. 복식부기 가계부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은 안전한 자산일까
12장. 복식부기 가계부 신용카드 할부 — 미지급금으로 적고 월말에 맞추는 법
13장. 복식부기 가계부 마이너스통장 회계처리 — 단기차입금으로 적고 월말에 맞추는 법

4부 · 평가 — 우리 집은 얼마짜리인가

14장. 복식부기 가계부 아파트 — 집값을 매년 다시 적는 법
15장. 복식부기 가계부 주식 기록방법 — 매매는 안 적고 세 가지만 적는다
16장. 복식부기 가계부 해외주식 회계처리방법 — 앱의 원화 평가액을 그대로 적는다

5부 · 읽는 법

17장. 복식부기 가계부 재무상태표 보는 법 — 매일은 잔액만, 연말에 다 본다
18장. 복식부기 가계부 순자산 — 통장 잔고가 아니라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번 것이다

1장. 부부 가계부 — “우리,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에서 시작됐다

전셋집을 구할 때 저와 아내가 모은 돈, 그리고 제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월급이 나올 때마다 전액을 제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빨리 없애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부의 통장이 합쳐진 것 같아요. 부부의 공금은 마이너스통장의 명의자인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통장의 마이너스 잔액이 조금씩 줄어들면 우리의 빚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라고 얼렁뚱땅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우리,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 저는 별생각 없이 은행 앱을 열어서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월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빚은 매월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가 회계사라 돈 관리 잘할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을 줄 몰랐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엑셀로 월별 자산, 부채 및 손익 현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엑셀로 가계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매달 공금에서 각자 계좌에 용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공금을 써야 할 때는 본인 용돈으로 먼저 쓴 후에 저에게 청구해서 받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공금을 관리했기 때문에요. 저는 부부가 함께 공금을 관리하고 가계부도 함께 쓰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부부노트의 첫 버전, 부부가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2022년부터 가계부 앱을 함께 쓰면서 공동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 앱은 부부 공동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도 보여주죠.

물론, 이 앱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회계가 그렇듯,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은 사용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씀씀이가 과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도 계속해서 초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씀씀이가 과하다는 것을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예산을 같이 세우고, 고치려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쌍둥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예산을 세웠습니다.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까지는 보육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키우면서 돈은 어떻게 모았나 싶습니다.

2장. 부부 용돈 — 급여처럼 주고, 어디에 썼는지는 묻지 않는다

1장에서 말씀드렸듯, 아내는 월급을 받으면 몽땅 제 마이너스통장으로 부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저희 부부의 통장은 제 마이너스통장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규칙 제1호 제1조가 정해졌어요.

> 제1조(수입의 관리) 모든 수입은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한다.

그리고 공동관리통장에서 각자에게 지급할 용돈을 정했습니다. 마치 가계라는 회사에서 직원인 부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듯이 말이에요. 용돈 금액의 비율은 남편 1 대 아내 1.5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경우 화장품도 사야 하고, 옷도 남성복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비싸기도 해서 평소 돈이 더 필요하다는 아내의 주장에 동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규칙 제1호 제3조가 정해졌지요.

> 제3조(용돈) (1) 용돈은 매월 일정한 날에 각자의 용돈 통장으로 입금한다.
> (2) 매월 용돈은 남편은 50만원, 아내는 75만원으로 한다.

용돈 금액에 대한 규칙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처음 정한 그 비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플스 게임 말고는 딱히 돈 쓸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 용돈이 남으면 아내에게 주곤(사실은 삥 뜯기곤) 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급여를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듯, 부부가 각자 받은 용돈은 가계부에서 '부부용돈'으로 비용 처리되고 세부내역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각자 월급을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듯, 저희 부부 사이에도 각자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각자 용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서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가 꽤 큰돈을 어딘가에 썼는데 그걸 몰랐던

게 속상했다고요. 지금도 그게 어디에 뭐 하러 쓴 돈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실 딱히 숨길 일을 제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꽤 큰돈의 지출은 꽤 큰 마음속 결정이었을 텐데, 그걸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은 것이 서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소통의 부재랄까요? 그 후론, 개인 용돈이라고 할지라도 큰돈을 쓸 경우에는 서로에게 귀띔이라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3장. 부부 돈 관리 규칙 — 말로 하던 약속을 문서로 만든 이유

저희 부부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가족 규칙을 명문화하고 개정할 때 그 이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지켜야 할 약속, 규범, 규칙은 어느 가족에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서화하는 일은 흔치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칙을 구두로만 해뒀다가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게 싫어서 문서화하자고 건의했고, 아내는 동의했습니다.

명문화된 가족 규칙이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에 작동할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 단계에서 몇 달간 시행해본 결과, 가족 규칙이 실제 우리 부부 사이의 질서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초안은 조금씩 다듬어져 2021년 10월 6일, 가족 규칙 제1호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조(수입의 관리) 모든 수입은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한다.

제2조(일시적인 수입) 통상임금 외에 일시적인 수입이 생겼을 경우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생긴 달의 용돈에 가산할 수 있다.

제3조(용돈) (1) 용돈은 매월 일정한 날에 각자의 용돈 통장으로 입금한다.
(2) 매월 용돈은 남편은 50만원, 아내는 75만원으로 한다.

제4조(부모님 용돈) 남편 세후소득의 10%를 양가 부모님께 각각 5%씩 드리며 초과분은 각자의 용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어느 한쪽의 부모님이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남편과 아내의 세후소득을 합한 금액의 5%를 드린다.

제5조(부모님 관련 지출) 부모님과의 식사, 문화생활 등에 대한 경비는 본가와 처가 각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경비로 지출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각자의 용돈으로 충당한다.

제6조(경조사비) (1) 공동경비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의 3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2) 경조사비는 공동경비에서 1회당 10만원 이내 금액을 지출하며 초과분은 상호 협의 하에 각자의 용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가족의 의료비) 양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상호협의 하에 대납할 수 있다.

제8조(노후준비) 남편과 아내는 노후를 위하여 매월 최소 2백만원의 빚을 갚거나 저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통장이 자연스레 합쳐지면서 가족 규칙 제1조와 제3조가 만들어졌다고 2장에서 말씀드렸죠. 제2조는 말 그대로 보너스 탔을 때 우리 부부가 각자 여유를 좀 즐기자고 만든 조항이에요. 참고로 가족 규칙 제1호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같은 조항도 없고 부부 용돈도 좀 여유가 있지요.

제4조, 부모님 용돈의 경우 결혼 전부터 저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일조를 바치듯, 저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소득의 10퍼센트를 주겠다는 거죠. 부모님은 저를 키우느라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득의 10퍼센트는 누가 보기엔 많을 수도 있고 대견해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선은 사실 저에게는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아도 될 명분이 되었으니까요. 딱 10퍼센트만 드리면 나중에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효도를 가장한 영악한 설계였던 것이죠.

아내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철칙을 이야기했고 아내도 거기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4조는 초안 단계에서는 단서 문장이 없었습니다. 제 소득만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5%씩 드리는 게 전부였죠. (사실 십일조 룰을 정할 때 결혼 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결혼 후에 본가, 처가에 각 10%씩 드리는 건 너무 부담이라 10%를 반으로 나누는 쪽으로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느 한쪽 부모님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내의 세후 소득까지 합해서 그 5%를 드리자고요. 제4조는 이후 몇 년간 이어지다가 2026년 8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본가, 처가 어느 한쪽과의 만남 등에 공금 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어느 한쪽 집에 공금을 많이 쓴다는 기분이 들 경우 말은 안 해도 불만이 쌓일 것 같았거든요.

제7조, 가족 의료비의 경우 아버지가 위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아내가 가족 규칙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면 살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만약 잘못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고요.

제8조는 100세 시대에 우리 부부가 노후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넣은 조항입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2023년 7월, 제9조 양육비가 신설되면서 가족 규칙 제2호가 만들어졌습니다.

> 제9조(양육비) 양가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때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정기적: 월 200만 원을 제3조의 날에 지급
> 2. 비정기적: 일 10만 원을 당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

이후 양육비를 늘리고, 부부 용돈을 삭감하는 등, 사정에 따라 가족 규칙을 개정하다가 2026년 11월 현재 제8호까지 와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규칙의 제1조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제9조까지 모두 재정에 관한 내용만 있네요. 이후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가족 규칙에 '재정'의 장(　)이 아닌 '육아'나 '교육'과 같은 장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먼 훗날 쌓여있는 가족 규칙의 개정 연혁을 보며 이때 그런 결정을 했었지, 하며 추억을 회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부부노트에 가족 규칙을 발의하고 동의하면서 규칙의 연혁을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 규칙을 만들고 소통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면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4장. 복식부기란 — 가계부로 배우는 차변 대변과 다섯 계정

기업 회계가 아닌 가계부로 복식부기를 배워봅시다. 차변과 대변, 그리고 다섯 계정이 가계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입니다.

---

1.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순자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수익, 비용이라는 5개의 계정을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각각 세팅한 후, 각 거래가 있을 때마다 차변과 대변에 적절한 계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

2. 계정

자산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단, 사용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원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 시계, 가방 등) (일반가계회계기준 제3조 제3항 제1호)

부채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3조 제3항 제2호)

자본(순자산)

'자본'이란 가계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 순자산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3조 제3항 제3호)

수익

거래를 통해 자본(순자산)이 늘어나는 현상(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줄어드는 등)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비용

거래를 통해 자본(순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등)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

3.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은 5개 계정이 본래 머물러야 할 가상의 공간입니다. 각 계정이 머물러야 할 공간은 아래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자산 - 부채 = 자본

내가 가진 자산에서 빚을 빼면 순수한 내 몫인 순자산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부채를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 자산 = 부채 + 자본

내가 가진 자산은 남의 몫인 부채와 순수 내 몫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은 지난날에 쌓아온 자본과 이번에 얻은 수익과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산 = 부채 + 과거 누적 자본 + 수익 - 비용

이 식에서 비용을 좌변으로 넘기면,

> 자산 + 비용 = 부채 + 과거 누적 자본 + 수익

이렇게 =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차변 계정, 오른쪽에는 대변 계정이 세팅되게 됩니다.

차변

위 산식의 = 부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가상의 공간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산과 (자본의 감소를 뜻하는) 비용, 2개의 계정이 초기 세팅되어 있죠.

자산이 차변에 기록되면 증가함을, 대변에 기록되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차변에 기록되면 발생함을, 대변에 기록되면 취소됨을 의미합니다.

대변

위 산식의 = 부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상의 공간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채, (과거 누적)자본, 수익, 3개의 계정이 초기 세팅되어 있죠.

부채가 대변에 기록되면 증가함을, 차변에 기록되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자본이 대변에 기록되면 증가함을, 차변에 기록되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대변에 기록되면 발생함을, 차변에 기록되면 취소됨을 의미합니다.

---

4. 분개

분개는 발생한 거래를 가계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래를 알아채고, 그 거래로 인해 어떤 계정에 증감이 발생했는지 판단 후, 각 계정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이라는 공간에 실제로 적는 것이죠.

차변과 대변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실제의 공간으로 옮긴 것이 전표, 분개장, 원장들입니다. 어쨌든 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테트리스처럼 (비록 꽂아넣을 곳이 차변과 대변, 2개밖에 없지만) 계정의 금액들을 쌓은 후, 집계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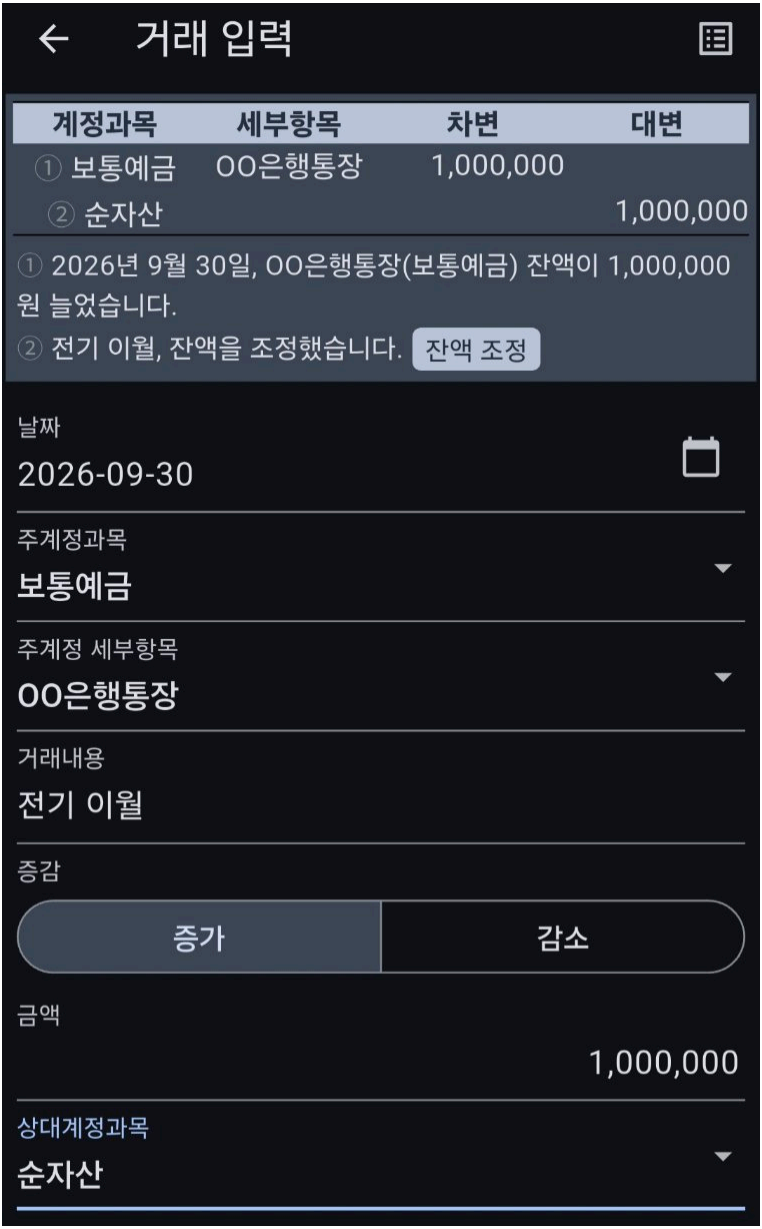
---

5. 분개 예시 — 첫 달

(1) 전기이월 — 자산 (자산↑ 순자산↑)

가계부를 처음 쓰기로 하면서 전기이월 통장잔액 1,000,000원을 입력함.

> (차) 보통예금(OO은행) 1,000,000 / (대) 순자산 1,000,000



살고 있는 집의 순실현가능가치(14장 참고) 200,000,000원을 입력함.

> (차) 투자부동산(A아파트) 200,000,000 / (대) 순자산 2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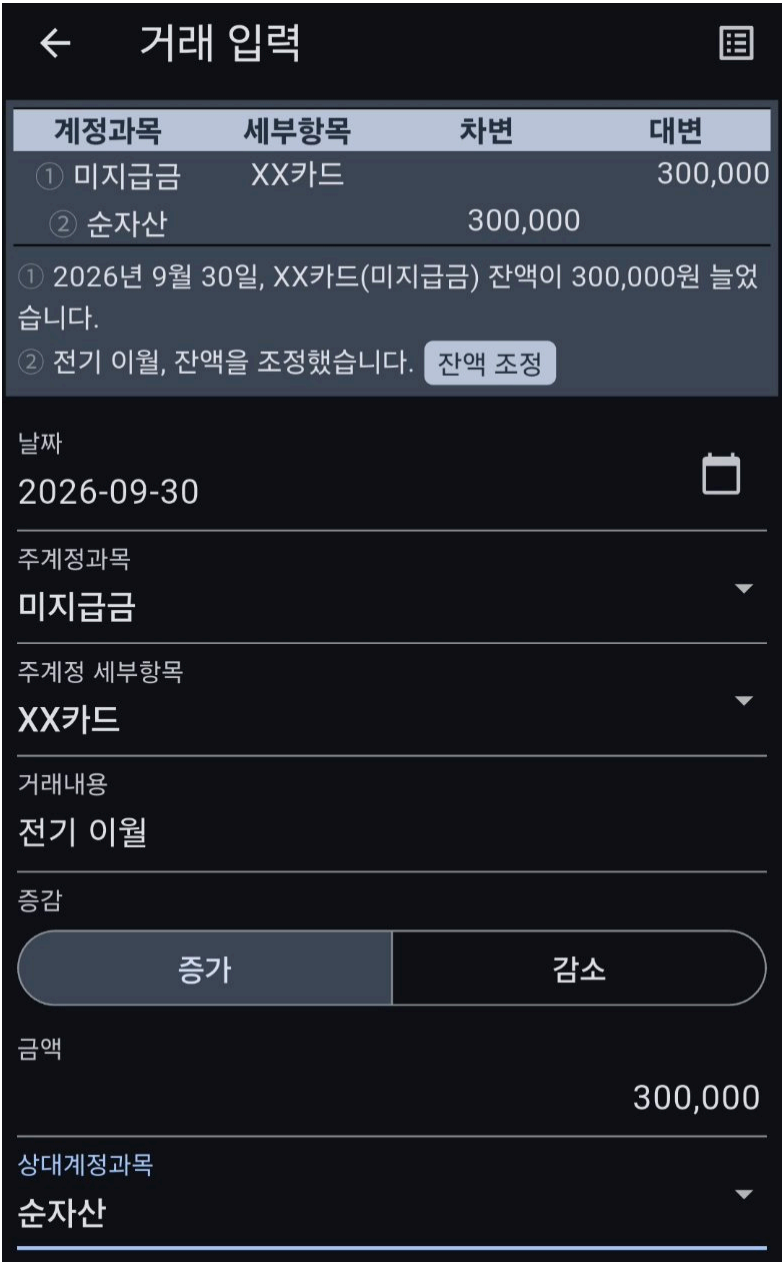
순자산을 직접 입력하는 것은 과거 누적 자본을 기록하는 것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 잔액을 어떤 순서로 적는지는 9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전기이월 — 부채 (순자산 ↓ 부채 ↑)

지난달 신용카드 미지급금을 전기이월로 입력함.

> (차) 순자산 300,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300,000
> (차) 순자산 2,000,000 / (대) 미지급금(YY카드) 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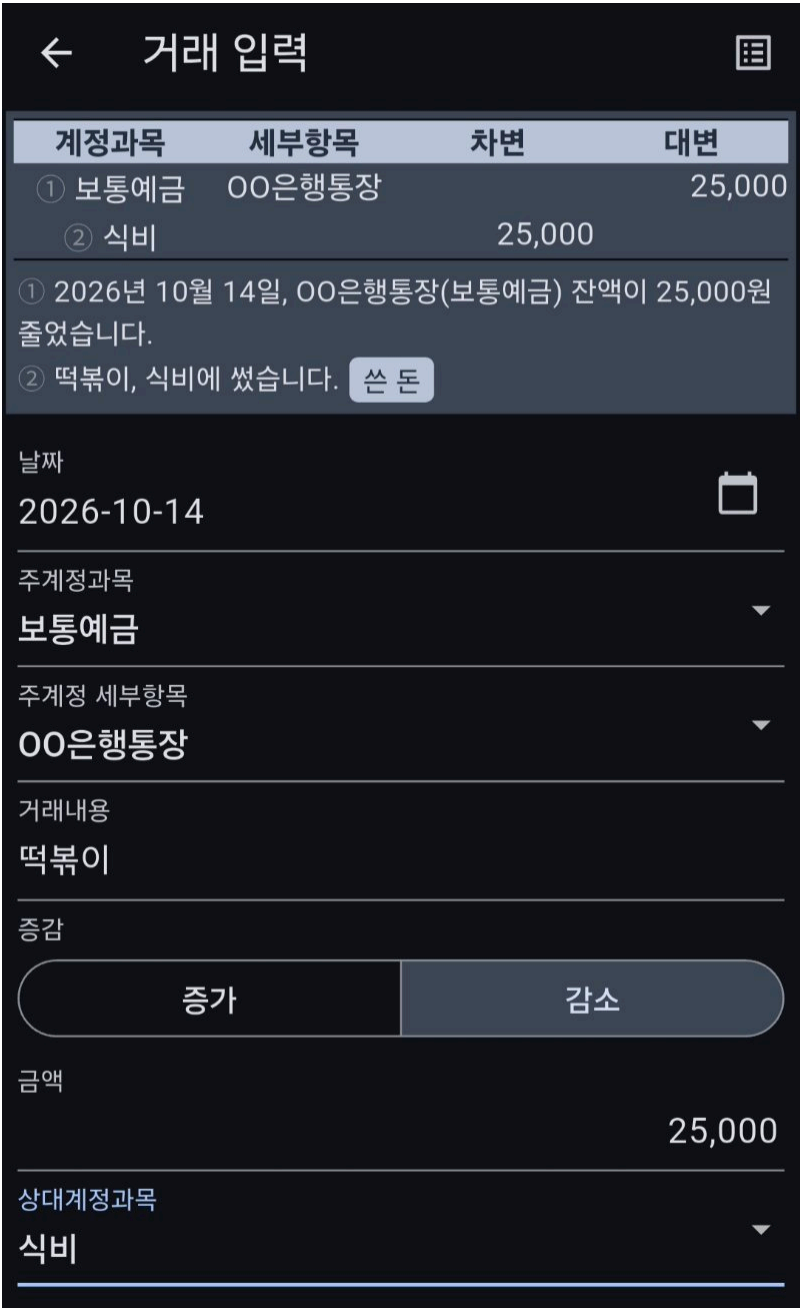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 100,000,000원을 전기이월로 입력함.

> (차) 순자산 100,000,000 / (대) 장기차입금(주담대) 100,000,000

(3) 통장에서 돈 나감 (비용↑ 자산↓)

체크카드로 25,000원짜리 떡볶이 시켜 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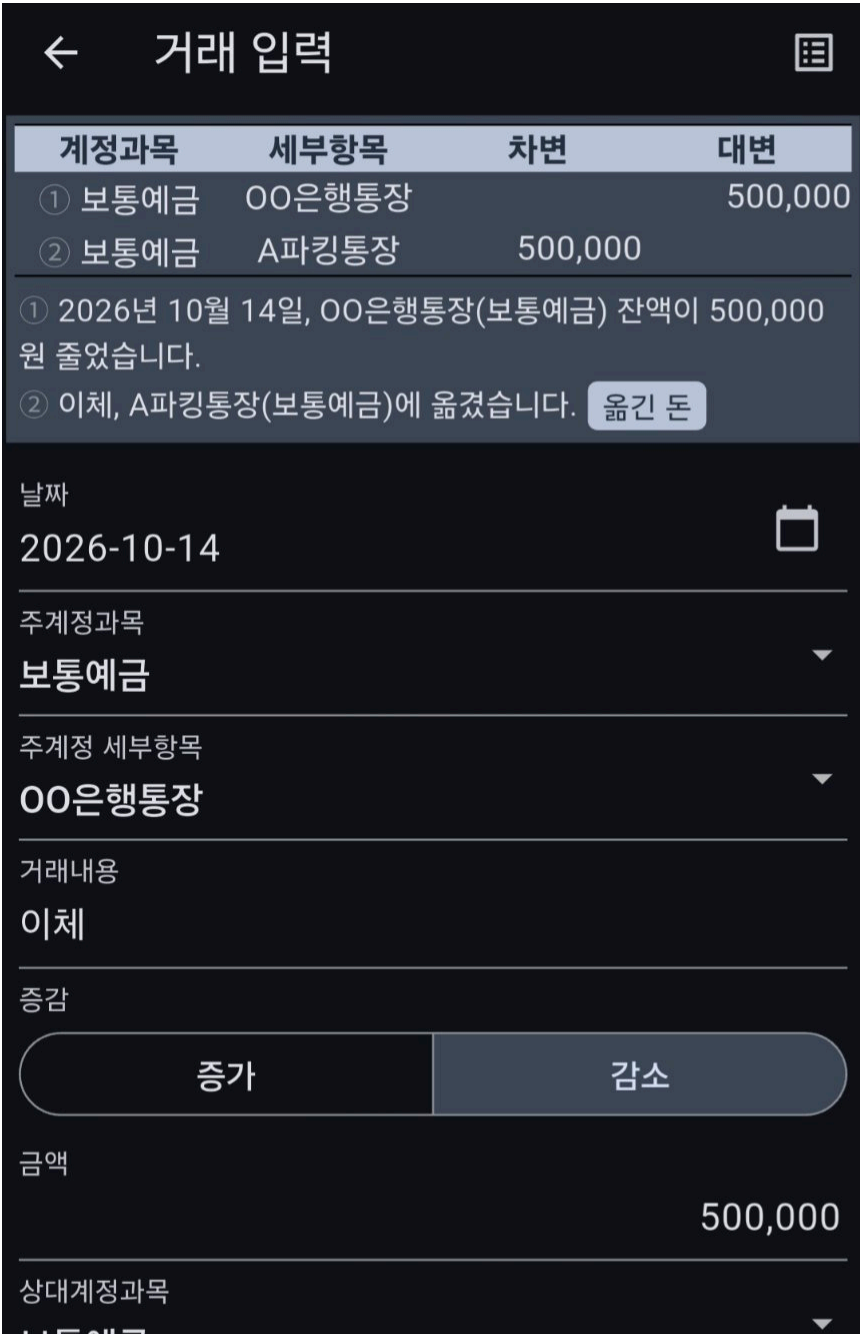
> (차) 식비 25,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25,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25,000
② 식비
25,000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25,000원 줄었습니다.
② 떡볶이, 식비에 썼습니다.
쓴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떡볶이
증감
증가
감소
금액
25,000
상대계정과목
식비

(4) 통장 이체 (자산↑ 자산↓)

OO은행 예금을 A파킹통장으로 500,000원 이체함.

> (차) 보통예금(A파킹통장) 50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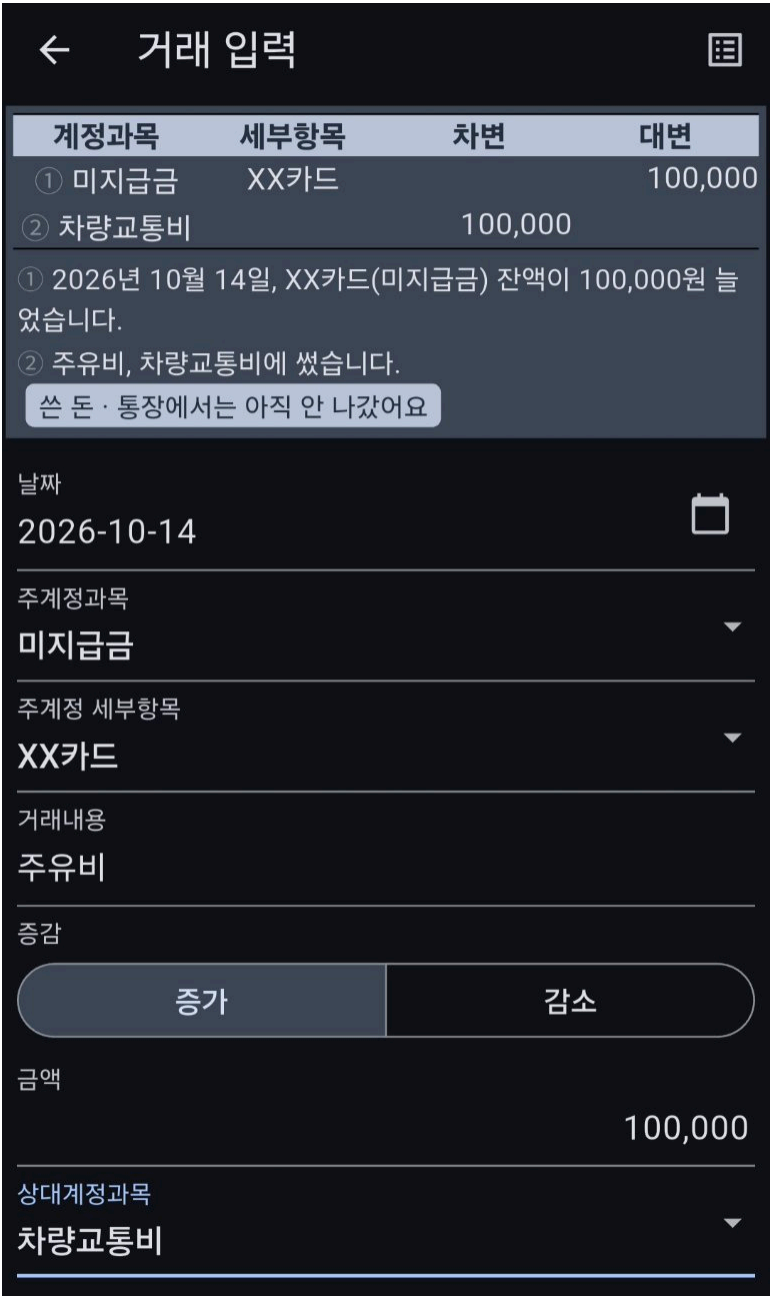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500,000
② 보통예금
A파킹통장
500,000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500,000 원 줄었습니다.
② 이체, A파킹통장(보통예금)에 옮겼습니다.
옮긴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이체
증감
증가
감소
금액
500,000
상대계정과목



(5) 신용카드 사용 (비용↑ 부채↑)

신용카드로 주유비 100,000원 결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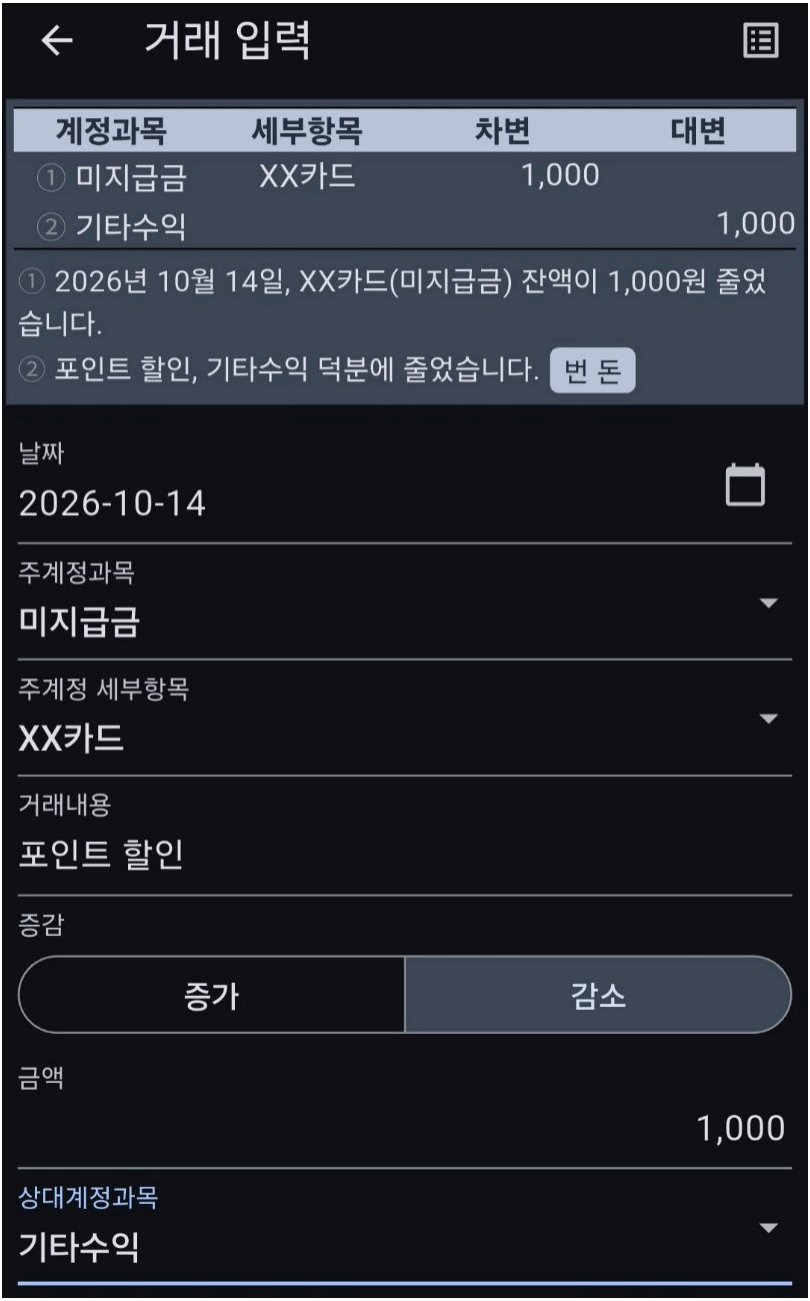
> (차) 차량교통비 100,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10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미지급금
XX카드
100,000
② 차량교통비
100,000
① 2026년 10월 14일, XX카드(미지급금) 잔액이 100,000원 늘었습니다.
② 주유비, 차량교통비에 썼습니다.
쓴 돈 · 통장에서는 아직 안 나갔어요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미지급금
주계정 세부항목
XX카드
거래내용
주유비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00,000
상대계정과목
차량교통비

(6)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부채↓ 수익↑(또는 비용↓))

포인트할인 1,000원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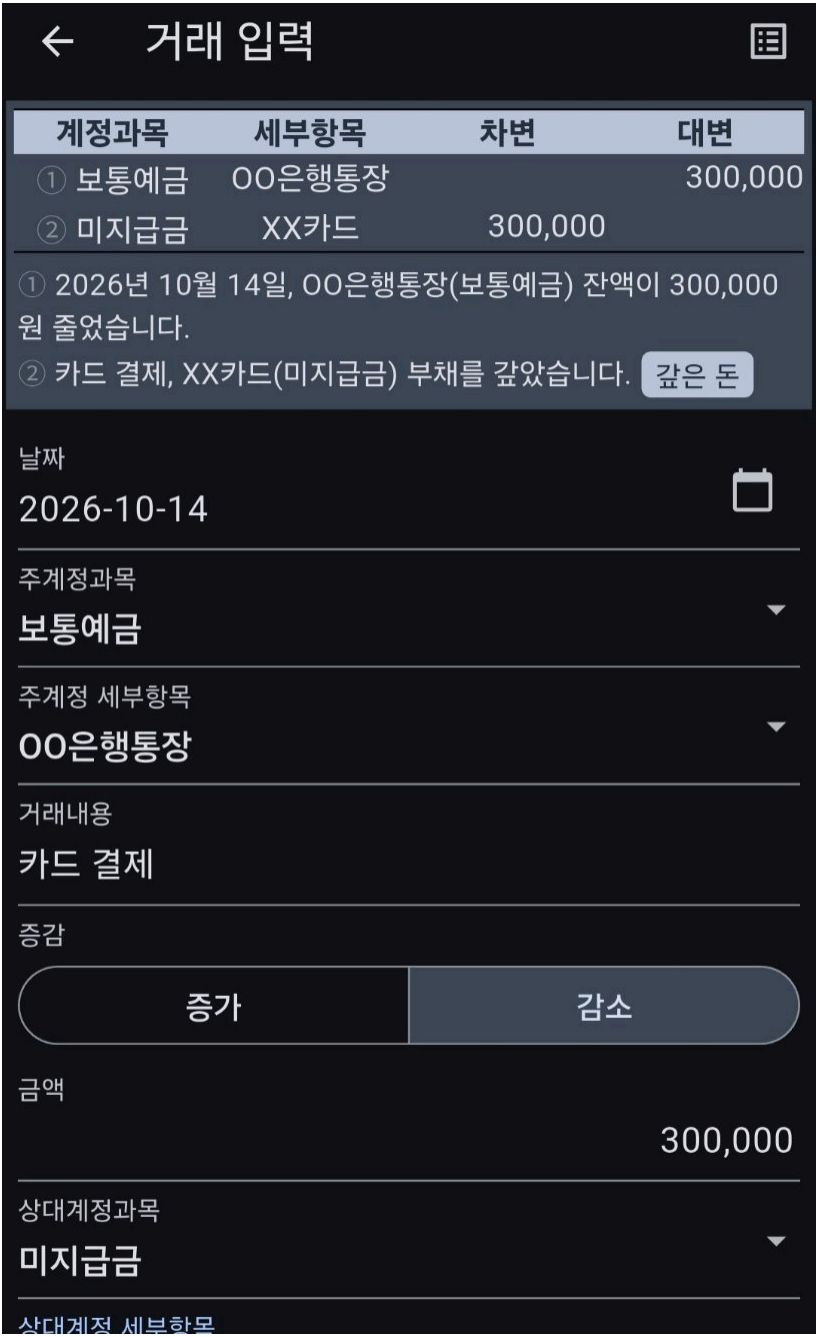
> (차) 미지급금(XX카드) 1,000 / (대) 기타수익(또는 차량교통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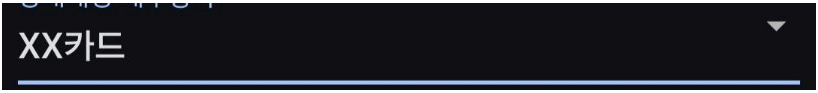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미지급금
XX카드
1,000
② 기타수익
1,000
① 2026년 10월 14일, XX카드(미지급금) 잔액이 1,000원 줄었습니다.
② 포인트 할인, 기타수익 덕분에 줄었습니다.
번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미지급금
주계정 세부항목
XX카드
거래내용
포인트 할인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000
상대계정과목
기타수익

(7) 신용카드 결제 (부채↓ 자산↓)

지난달 XX신용카드 대금 300,000원 결제함.

> (차) 미지급금(XX카드) 30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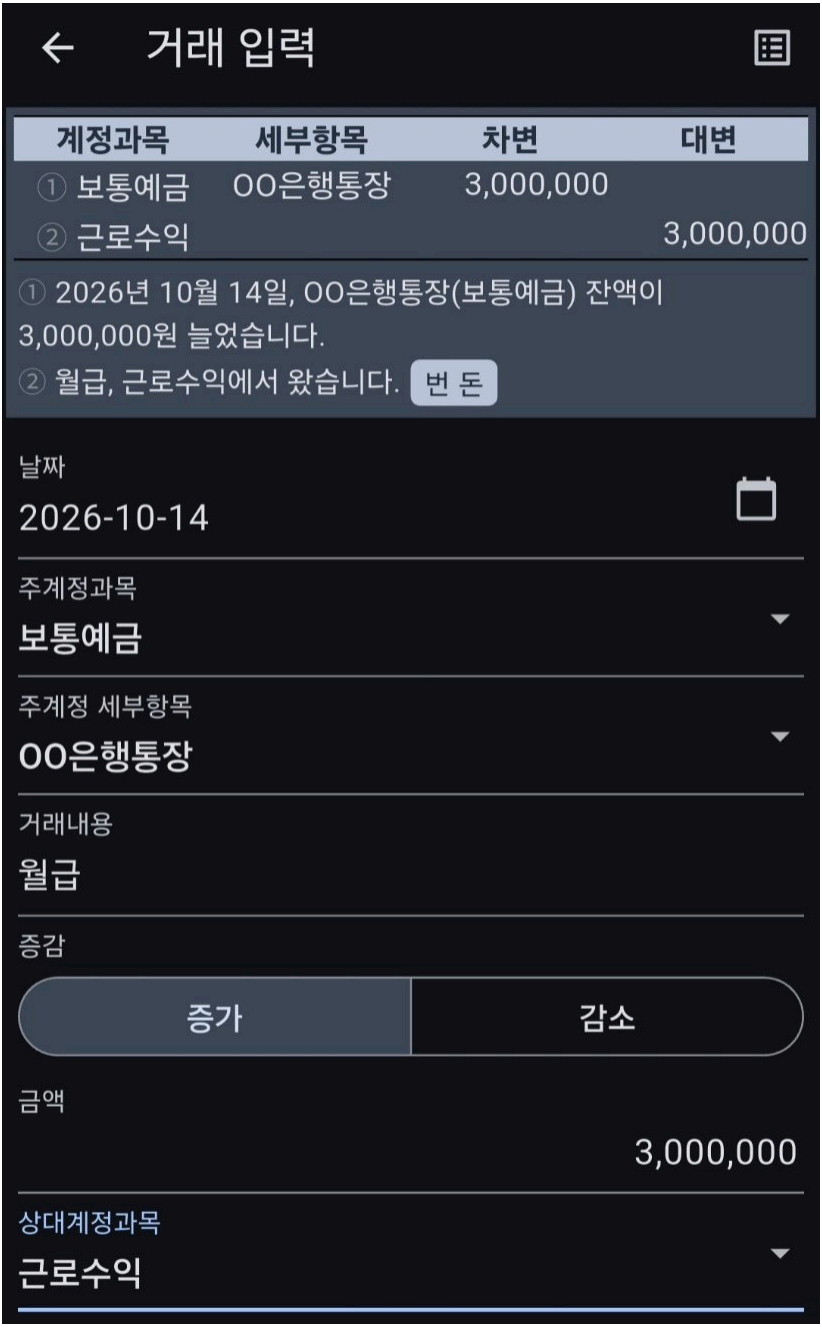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300,000
② 미지급금
XX카드
300,000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300,000 원 줄었습니다.
② 카드 결제, XX카드(미지급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갚은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카드 결제
증감
증가
감소
금액
300,000
상대계정과목
미지급금
상대계정 세부항목



(8) 월급 (자산↑ 수익↑)

통장으로 급여 3,000,000원 입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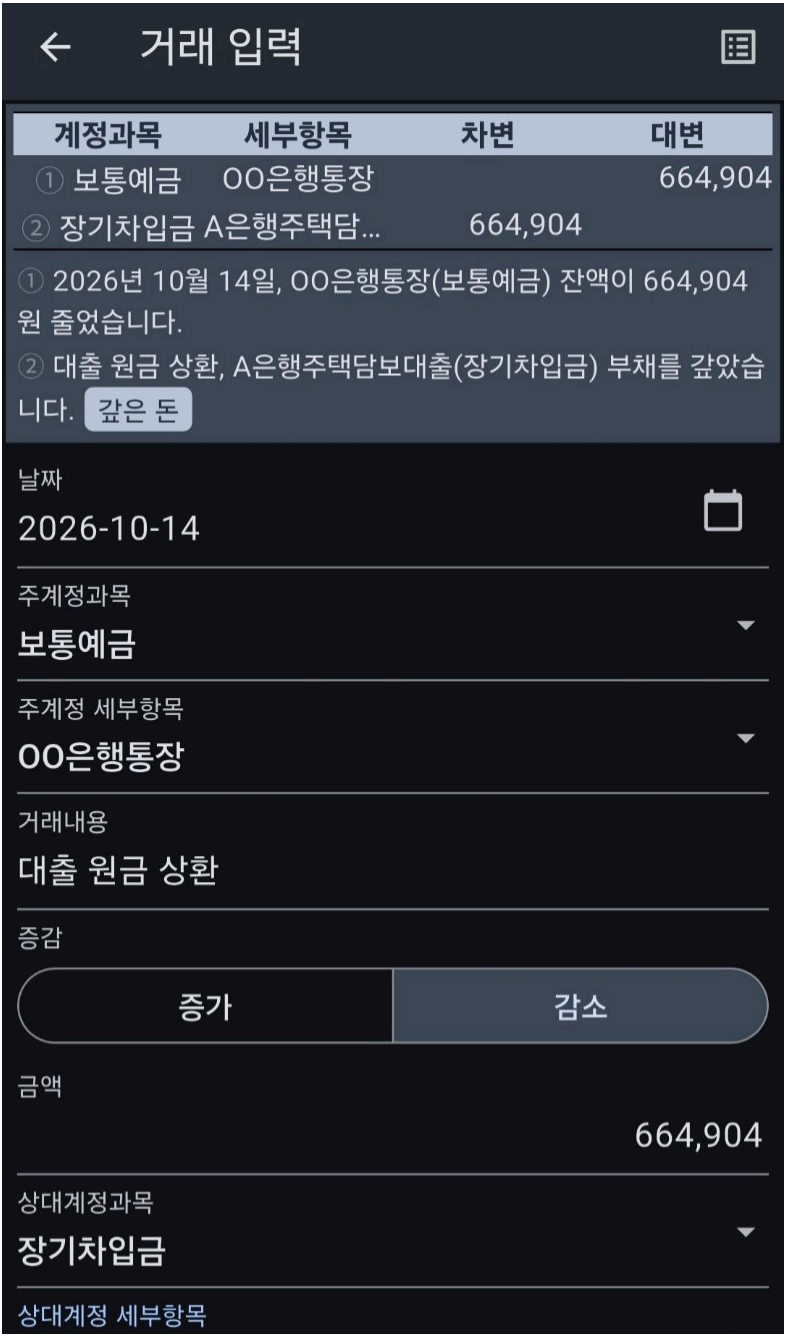
> (차) 보통예금(OO은행) 3,000,000 / (대) 근로수익 3,00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3,000,000
② 근로수익 3,000,000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3,000,000원 늘었습니다.
② 월급, 근로수익에서 왔습니다.
번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월급
증감
증가
감소
금액
3,000,000
상대계정과목
근로수익

(9) 대출 원금 상환 (부채↓ 자산↓)

주담대 당기 원리금 상환액 1,031,570원 중 원금 664,904원을 기록함.

> (차) 장기차입금(주담대) 664,904 / (대) 보통예금(OO은행) 664,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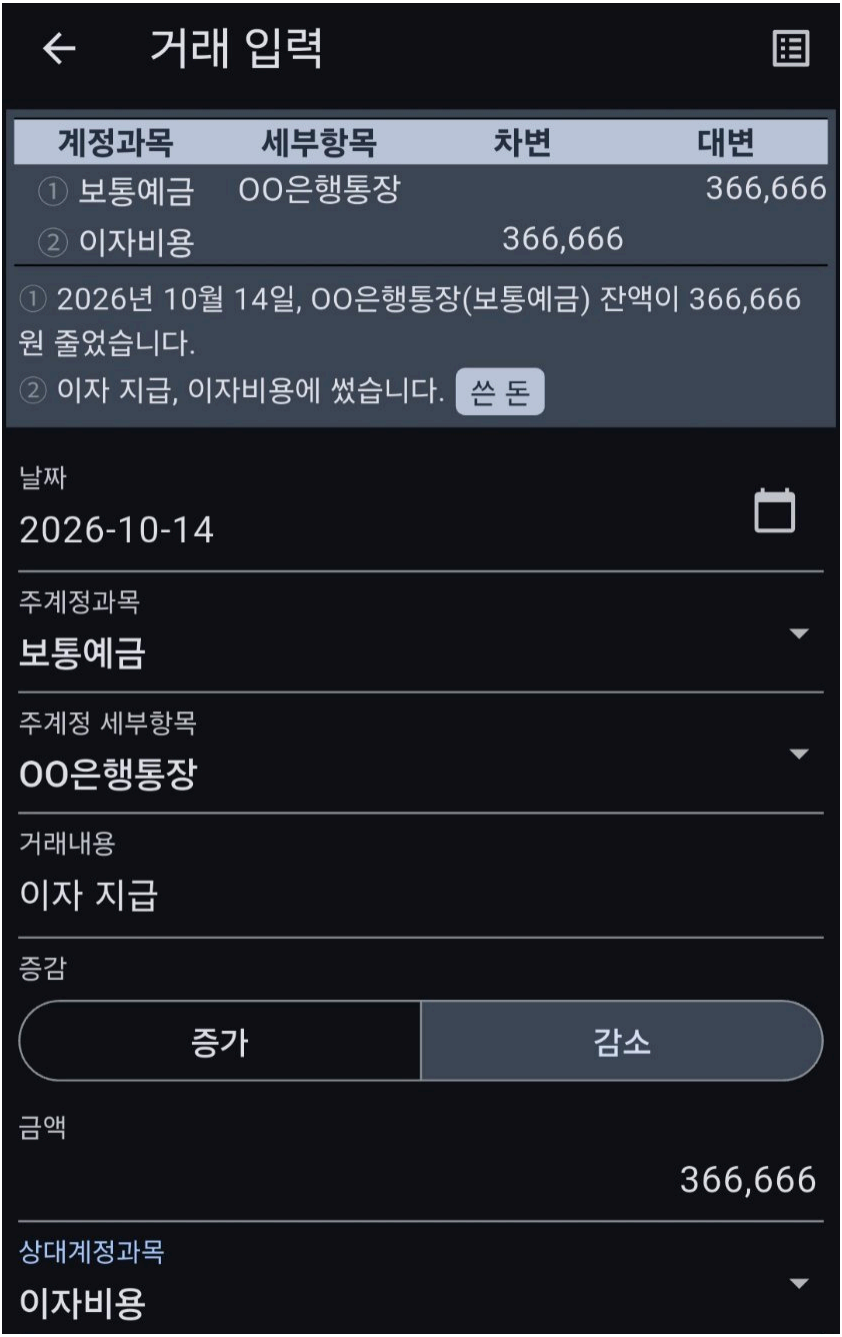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664,904
② 장기차입금
A은행주택담...
664,904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664,904원 줄었습니다.
② 대출 원금 상환, A은행주택담보대출(장기차입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갚은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대출 원금 상환
증감
증가
감소
금액
664,904
상대계정과목
장기차입금
상대계정 세부항목

A은행주택담보대출

(10) 이자비용 (비용↑ 자산↓)

주담대 당기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 366,666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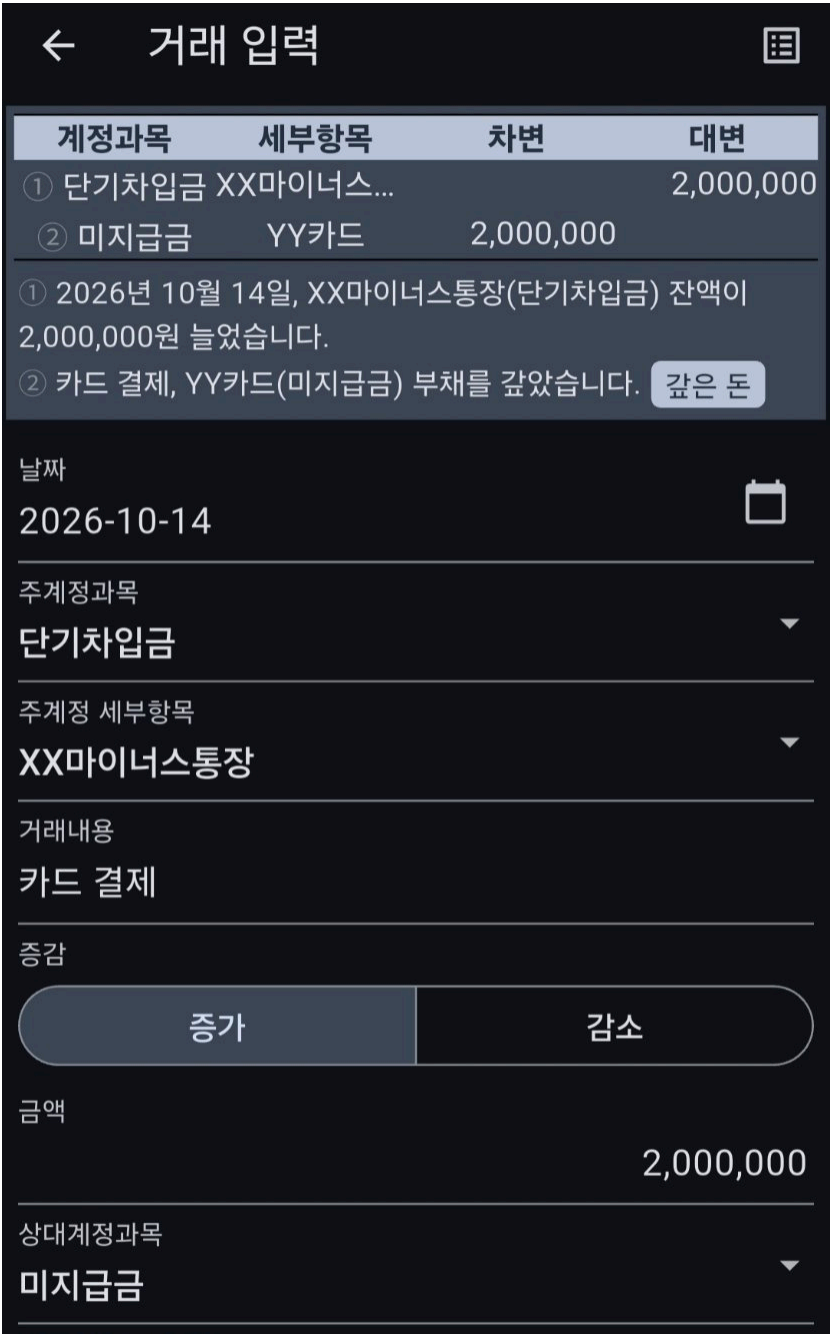
> (차) 이자비용 366,666 / (대) 보통예금(OO은행) 366,666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OO은행통장
366,666
② 이자비용
366,666
① 2026년 10월 14일, OO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366,666 원 줄었습니다.
② 이자 지급, 이자비용에 썼습니다.
쓴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OO은행통장
거래내용
이자 지급
증감
증가
감소
금액
366,666
상대계정과목
이자비용

(11) 마이너스통장으로 카드대금 결제 (부채↓ 부채↑)

마이너스통장으로 YY신용카드 대금 결제함.

> (차) 미지급금(YY카드) 2,000,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2,00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단기차입금 XX마이너스...
2,000,000
② 미지급금
YY카드
2,000,000
① 2026년 10월 14일, XX마이너스통장(단기차입금) 잔액이 2,000,000원 늘었습니다.
② 카드 결제, YY카드(미지급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갚은 돈
날짜
2026-10-14
주계정과목
단기차입금
주계정 세부항목
XX마이너스통장
거래내용
카드 결제
증감
증가
감소
금액
2,000,000
상대계정과목
미지급금



이 장의 캡처는 모두 부부노트 화면입니다. 위의 열한 거래를 그대로 따라 넣어 보면, 거래를 넣을 때마다 분개 미리보기가 차변과 대변을 한 줄로 보여 줍니다.

5장. 복식부기 가계부 회계기준 — 도구만으로는 장부를 쌓을 수 없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차변, 대변을 몰라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계부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차변과 대변을 몰라도 복식부기 가계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야망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저는 결국 복식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차변과 대변, 그리고 5개의 계정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든 입력을 통해 재무제표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지식만 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게다가 반쪽은 회계 지식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 만든 개념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오히려 반갑지 않은 부작용이 존재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막상 회계처리를 하려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무엇이 자산인가? 자동차도 자산인가? 그럼 명품 가방은? 명품 시계는? 청바지는? 아파트는? 수익과 비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차변과 대변, 그리고 5개의 계정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기록을 쌓아 올릴 기준,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죠.

결국 복식부기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만 사용할 기준을 만들다가, 우리나라에 일반 가정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드는 김에 일반적인 가계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었죠. 그것이 '일반가계회계기준'입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하나씩 가계의 실정에 맞게 고쳤어요. 최초로 만든 건 2023년 3월 6일,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을 거쳐 부부노트에 최신 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싶지만 기준이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앞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던 질문들을 이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 보려고 해요. 첫 질문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6장. 복식부기 가계부, 자동차 구입은 어디에 적나

이번에 3,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우리 집의 재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1. 자동차 구입비는 '비용'이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3조 제3항 제1호는 자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단, 사용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원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예: 자동차, 시계, 가방 등)**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기준에 하나씩 대봅시다. 돈 주고 샀고(과거의 거래), 내 명의고(통제), 앞으로 타고 다닙니다(경제적 효익). 따라서 앞쪽(본문)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단서에 자동차를 콕 집어서 자산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나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입니다. 저축은요? 저축은 투자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저위험 저수익 투자지요.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 62쪽) 자동차의 재판매 가격은 보통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 장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는 없게 되죠. 따라서 자동차 구입은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준의 단서가 의도하는 바는,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는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은 투자가 아닌 소비이며, 일반가계회계기준은 자동차 구입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 자동차 살 때: (차) 비품구입비 3,000만 / (대) 보통예금 3,000만

---

2. 자동차 구입비는 '변동'비용이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은 비용을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8조 제3항 제4호) '고정비용'이란 가계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1조 제1항) 그리고 '변동비용'은 고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하죠.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4조 제1항)

자동차 구입비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동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4조 제1항)

하지만 자동차를 리스, 렌트해서 리스료나 렌트료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나간다면 고정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주유비, 자동차세 같은 차량교통비도 고정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1조 제2항)

참고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처럼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비용을 고정비용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의 고정적인 수준의 월 손익을 가늠할 수 없게 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는 정보가 없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

3. 자동차의 판매수익은 변동수익이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은 수익을 고정수익과 변동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8조 제3항 제4호) '고정수익'이란 가계의 주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0조 제1항) '변동수익'이란 고정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하지요.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3조 제1항)

자동차를 중고로 팔면 '변동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자동차 팔 때: (차) 보통예금 1,200만 / (대) 기타수익 1,200만

---

4. 우리 집의 재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일반가계회계기준에 따라 3,000만 원짜리 차를 변동비용(비품구입비)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재정은 정확히 3,000만 원만큼 가난해졌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찰리 멍거는 "회계는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투박한 근사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찰리의 연감』 90쪽) 회계기준에 따라 3,000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장부상 순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가계 재무상태의 근사치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0원과 3,000만 원의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0원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자동차의 실제 가치는 실제로 파는 날에 변동수익으로 드러날 겁니다.

저는 위의 두 분개를 부부노트에 그대로 적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을 준용해 만든, 부부가 함께 쓰는 복식부기 가계부입니다.

Q&A

Q1.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회계기준처럼 자동차 구입액을 우선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에 대응할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자동차,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매출 말이죠. 따라서 기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수익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자동차를 사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에 대응할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임대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위해 자동차를 산 거라면 그 자동차는 가계의 장부가 아니라 기업의 장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년 세무신고할 때 내는 그 장부 말이죠.

Q2. 자동차 판매 수익을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투자자산처분손익은 장부에 있던 자산을 팔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자동차는 처음부터 자산이 아니었으니 처분할 자산이 없는 것이죠.

Q3. 자동차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손실이 커지는데요?

자동차 구입비를 변동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에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일반가계회계기준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투자가 아닌 소비에 큰돈을 쓰는 경우 장부상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요.

7장. 복식부기 가계부 고정비 변동비 구분 — 또 나갈 돈인가로 나눈다

가계부를 쓸 때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고정과 변동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그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고정수익, 고정비용의 기준과 고정손익

'고정수익'이란 가계의 주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0조 제1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기준 제10조 제2항)

> 고정수익 예: 근로수익, 사업수익, 연금수익 등

'고정비용'이란 가계 구성원의 생계 유지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1조 제1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기준 제11조 제2항)

> 고정비용 예: 부부용돈,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주거통신비, 보험료, 차량교통비, 식비, 생활용품비, 교육도서비, 이자비용 등

고정이익(또는 손실)은 고정수익에서 고정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2조)

---

2. 변동수익, 변동비용의 기준과 순손익

'변동수익'이란 고정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3조 제1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 제13조 제2항)

> 변동수익 예: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수익, 퇴직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등

'변동비용'이란 고정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4조 제1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기준 제14조 제2항)

> 변동비용 예: 문화생활비, 모임경조사비, 건강의료비, 비품구입비, 기타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

순이익(또는 손실)은 고정손익에서 변동수익을 가산하고 변동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5조)

---

3. 고정과 변동을 나누는 판단 기준의 원칙

고정수익과 고정비용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 언뜻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두부 자르듯 고정과 변동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내년에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보험료의 경우 내년에도 낸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을 예측하기 위해 그 수익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리라 가정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정과 변동을 나누는 판단 기준의 원칙은 '기대'와 '보수주의'입니다. 수익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입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고정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 밖의 경우 변동수익으로 분류합니다. 비용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출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

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고정비용으로 분류합니다. 그 밖의 경우 변동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식비의 예를 들어보죠. 식비의 경우 내년에도 어떻게든 나가게 될 겁니다. 식사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등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말이죠. 줄이거나 늘리는 등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반드시 나간다고 '기대'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금액은 올해 발생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죠. 따라서 식비는 고정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용돈의 예도 들어보죠. A 부부는 부모님용돈을 매월 드리고(사실상 생활비죠), B 부부는 명절에 가끔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부부는 부모님용돈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A 부부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부모님에게 용돈(생활비)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부모님용돈을 고정비용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B 부부의 경우 이번에 용돈을 드렸다고 해서 내년에도 드릴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으며,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변동비용으로 분류합니다.

건강의료비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죠. 따라서 건강의료비는 변동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수익/비용이라도 각 가계의 '기대'에 따라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노트에서는 고정/변동 보기뿐만 아니라 태그 보기(육아, 반려동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익/비용을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Q&A

Q1.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고정/변동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1) 이자비용 → 고정비용

빚은 한번 생기면 어지간하면 없애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자로 먹고사는데 채무자들이 그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부과하죠.

보통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발생한 때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이 모자란 상태고 나머지의 경우 차입금 규모가 크고 만기가 깁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자비용이 쉽사리 사라지기는 힘든 상태죠.

따라서 이자비용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환 스케줄표 등에 의해 유출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수익 → 변동수익

'기대'와 '보수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익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입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고정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 밖의 경우 변동수익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보통예금 이자의 경우 잔액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고정수익의 정의에 부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이자의 경우 고정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도 해지 가능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정기예금이라 하더라도 변동수익으로 분류합니다.

8장. 복식부기 가계부 서식 — 부부가 실제로 쓰는 계정과목 표

저희 부부가 실제로 쓰는 계정과목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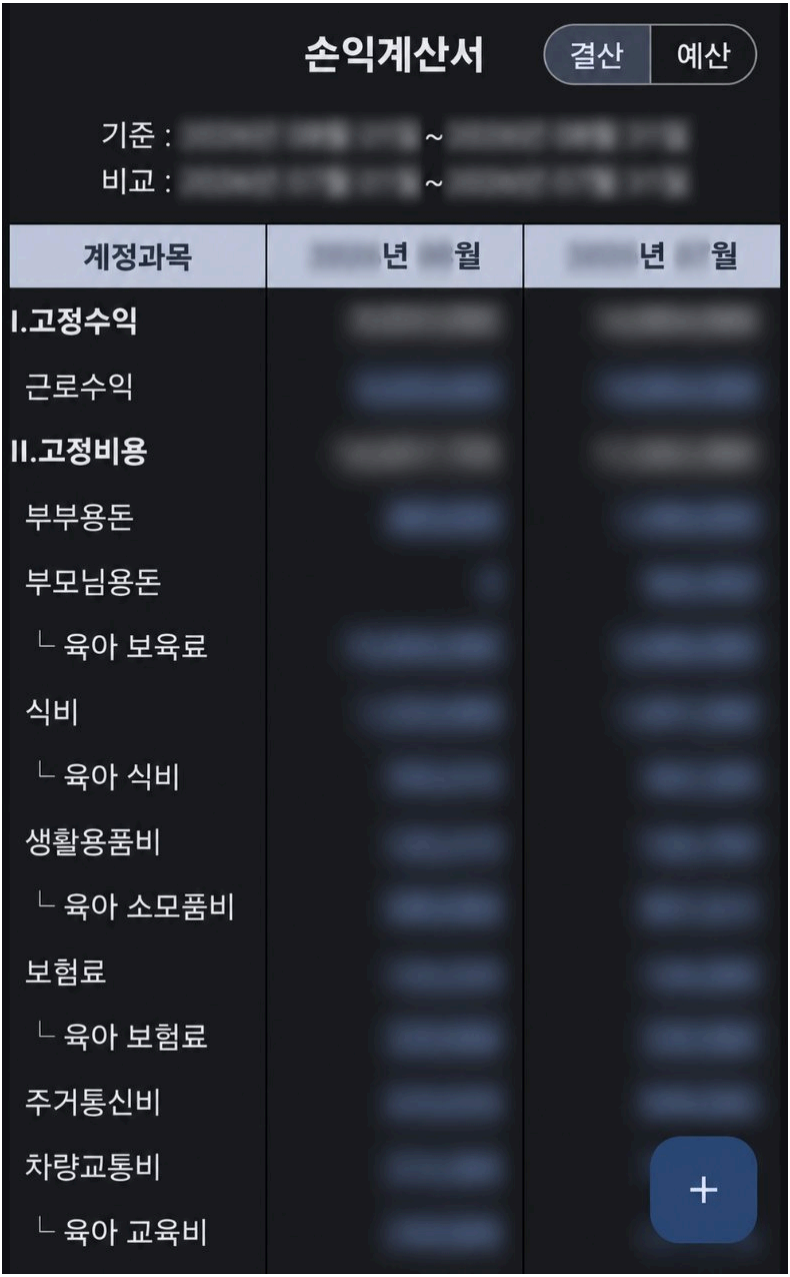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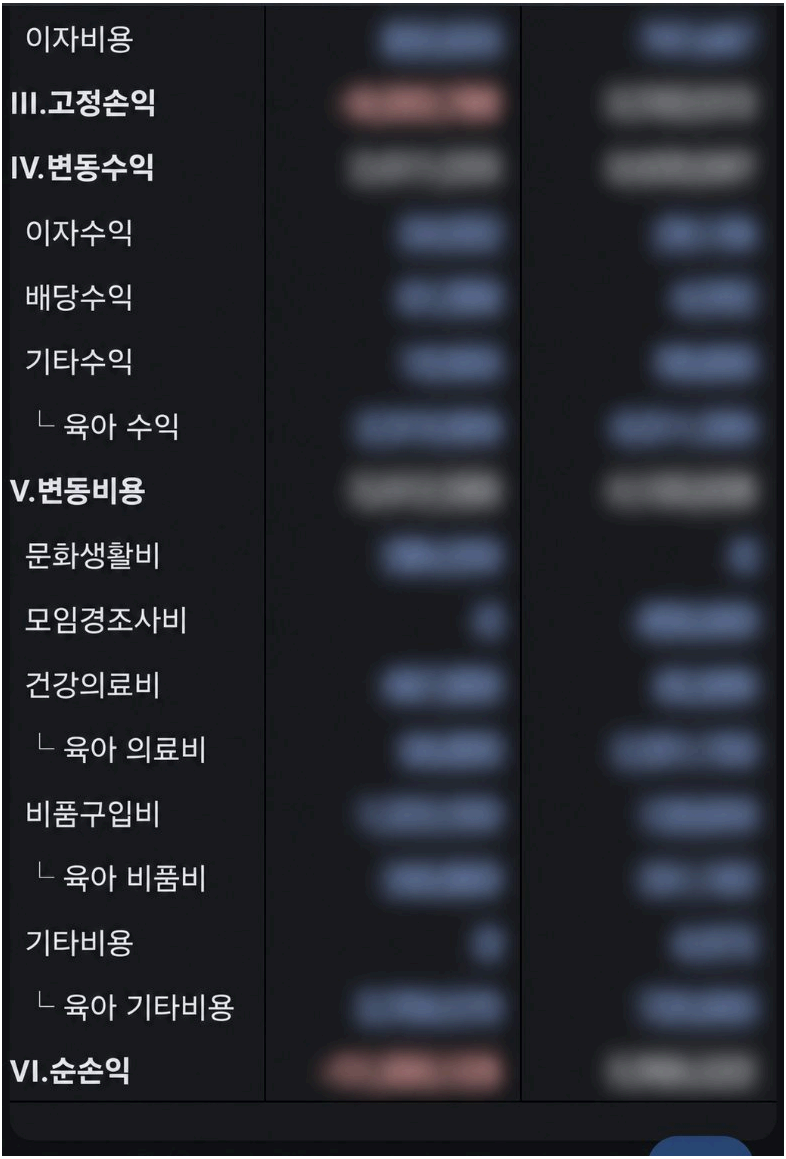
1. 우리 집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저희 부부는 일반가계회계기준(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에서 예시로 열거된 계정과목에 '육아' 계정과목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에 있는 계정 (제10·11·13·14조 ②, 굵은 글씨는 우리 집이 쓰는 계정)	우리가 만든 계정 (붙인 자리)
고정수익	**근로수익** · 사업수익 · 연금수익	
고정비용	**부부용돈** · **부모님용돈** · 자녀용돈 · **주거통신비** · **보험료** · **차량교통비** · **식비** · **생활용품비** · **교육도서비** · **이자비용**	육아 보육료(부모님용돈 밑) · 육아 식비(식비 밑) · 육아 소모품비(생활용품비 밑) · 육아 보험료(보험료 밑) · 육아 교육비(교육도서비 밑)
변동수익	**이자수익** · **배당수익** · **기타수익** · 퇴직수익 · 투자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평가이익** · 외환차익 · 외화환산이익	육아 수익(기타수익 밑)
변동비용	**문화생활비** · **모임경조사비** · **건강의료비** · **비품구입비** · **기타비용** · 투자자산처분손실 · 투자자산평가손실 ·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육아 의료비(건강의료비 밑) · 육아 비품비(비품구입비 밑) · 육아 기타비용(기타비용 밑)

실제 저희 가계부의 손익계산서 모양은 아래와 같은데요.


손익계산서
결산
예산
기준 :
~
비교 :
~
계정과목
년 월
년 월
I.고정수익
근로수익
II.고정비용
부부용돈
부모님용돈
└ 육아 보육료
식비
└ 육아 식비
생활용품비
└ 육아 소모품비
보험료
└ 육아 보험료
주거통신비
차량교통비
└ 육아 교육비
+


이자비용
III.고정손익
IV.변동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수익
└ 육아 수익
V.변동비용
문화생활비
모임경조사비
건강의료비
└ 육아 의료비
비품구입비
└ 육아 비품비
기타비용
└ 육아 기타비용
VI.순손익

계정과목에 있는 `ㄴ` 표시는 아내가 직접 넣은 겁니다. 기본 계정과목인 식비 중에서 육아 식비를 따로 구분하기 위해 '`ㄴ`육아 식비' 계정과목을 따로 만든 거죠.

저는 아내의 저 표시를 보고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 하위 계정을 또 둬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꼭 복잡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만약 육아 외에 별도로 구분하고 싶은 계정과목이 있다면 꼭 꺾쇠가 아니더라도 (육아), (계모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계정과목 이름에 꼬리표를 붙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2. 우리 집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경우 장기보증금 외에는 새로 만든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장기보증금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관리비 선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구분	기준에 있는 계정 (제4~7조 ②, 굵은 글씨는 우리 집이 쓰는 계정)	우리가 만든 계정 (붙인 자리)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 · 보통예금으로 나눠 씀) · **단기투자자산**(**단기금융상품**) · **미수금** · **선급금** · 단기보증금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 **장기투자증권** · **투자부동산** · 임차보증금	장기보증금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선수금 · 예수금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 임대보증금	

현금, 보통예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계정과목은 아니고, 기준에서 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5)

선급금은 주로 지역상품권 등을 살 때 씁니다. 보통 5~10%씩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살 때마다 회계처리를 두 번씩 하고 있어요.

- 10% 할인 발행되는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살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죠.
    - (차) 선급금 90,000 / (대) 보통예금 90,000
    - (차) 선급금 10,000 / (대) 기타수익 10,000

미지급금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미지급금은 신용카드 쓸 때 주로 사용하던 계정과목인데요. 막상 신용카드를 복식부기로 기록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는 미지급금을 쌓다가, 카드 대금 정산할 때 미지급금을 까야 하는데요. 저희는 기록하고 대조하는 게 귀찮아서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를 쓰는 집이라면 12장에 적는 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집 계정과목은 부부노트에서 이렇게 씁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의 틀은 그대로 두고, 두 분이 따로 보고 싶은 것만 계정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Q&A

Q1. 계정과목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나요?

일반가계회계기준에서는 계정과목을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합한 이름을 가진 계정과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도 됩니다.

단, 자본을 뺀 4개 계정(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어울리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야겠죠? 자산 계정에 XX수익 등을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산/부채의 경우 1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 구분을, 수익/비용의 경우 고정성 여부에 따라 고정/변동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구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정과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 계정의 경우 계정과목이 순자산 하나만 있는데, 이건 수정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수정이 필요한데 상대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초기 잔액 설정, 전기이월 수정, 오류 수정 등)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Q2. 계정과목에 하위 계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부항목은 뭔가요?

세부항목은 자산, 부채 계정과목에만 있으며, 필수 요소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은행에도 통장이 있고, B은행에도 통장이 있다면, '보통예금'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은행별 통장의 거래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부채인 카드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산, 부채 계정과목의 경우 세부항목이 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3. 육아 보육료를 부모님용돈 아래에 둔 이유는 뭔가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용돈 계정과목은 부모님 생활비에 가깝습니다. 저희 집은요. 그래서 위로 보살피는 비용과 아래로 보살피는 비용을 한눈에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배치했어요.

그리고 부부용돈을 그 위에 배치했는데요. 부부, 부모님, 아이들에게 나가는 고정비를 한눈에 보고 싶어서 모아뒀습니다.

9장. 복식부기 가계부 재무상태표, 처음 만들 때 자산·부채 적는 순서

비어있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눈앞이 캄캄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재무상태표
기준 : 2026년 09월 27일 현재
비교 : 2026년 08월 31일 현재
계정과목 2026년 09월 2026년 08월
I.유동자산 0 0
II.비유동자산 0 0
자산총계 0 0
I.유동부채 0 0
II.비유동부채 0 0
부채총계 0 0
순자산 0 0
‹ 좌우로 넘기면 다른 기간을 볼 수 있어요. ›
손익계산서
결산
예산
기준 : 2026년 09월 01일~2026년 09월 27일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
계정과목
집행
+
루틴
일정
가계부
분석
기타

하지만 막상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그냥 잔액을 나타내는 표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

1. 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란?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현금, 예금도 있고 주식과 채권 같은 유가증권도 있어요. 또한 돈으로 받을 권리인 채권(보증금 포함), 투자부동산도 있지요.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6장에서 설명했듯 일반가계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지갑뿐만 아니라 억만금을 줘도 안 팔 애착 인형 또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채는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를 긁었다면 다음 결제일에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죠. 마이너스통장의 마이너스 잔액은 그 자체로 빚입니다. 매달 잔액에 이자가 붙죠. 할부, 대출금도 모두 빚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진짜 우리 부부 몫의 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가계부를 쓰기 전까진 그 사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고요.

---

2. 첫날 적는 건 거래가 아니라 잔액입니다.

단식부기 가계부의 경우 달력에 얼마 썼는지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달력에 쓴 금액을 합하는 걸로 끝납니다. 시작이 간단하지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계부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복식부기 가계부의 경우 집요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가계부를 시작할 땐 일단 기초 잔액부터 입력하는 거죠.

3. 우리 가계의 자산, 부채를 파악하고 이월잔액 입력하기

1) 가계의 자산, 부채 파악

우선 우리 가계의 자산, 부채를 먼저 파악합니다. 단,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개인의 자산, 부채와 공동의 자산, 부채를 우선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과 회사의 돈은 서로 주인이 다릅니다. 회사는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도 회사 통장을 (경리가 아닌 이상) 들여다볼 일이 없죠.

마찬가지로 가계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계라는 기업의 소유, 즉 부부 공동의 자산, 부채와 개인의 자산, 부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가족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부부 공동 소유인지, 어디까지가 부부 각자의 소유인지를 정하는 규칙 말이죠.

저희 부부의 경우 제 개인 계좌 하나, 아내의 개인 계좌 둘을 제외하고는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부부 공동의 자산으로 보아 가계부에 편입시켰습니다. 사실상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 자산으로 보는 셈이죠.

우선 잔액을 파악하기 전에 어떤 자산, 부채가 있을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예금, 적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임차보증금, 투자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당연히 미지급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오토론, 만약 부동산 갭투자 중이라면 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자산 이월잔액 입력하기

2-1) 현금, 보통예금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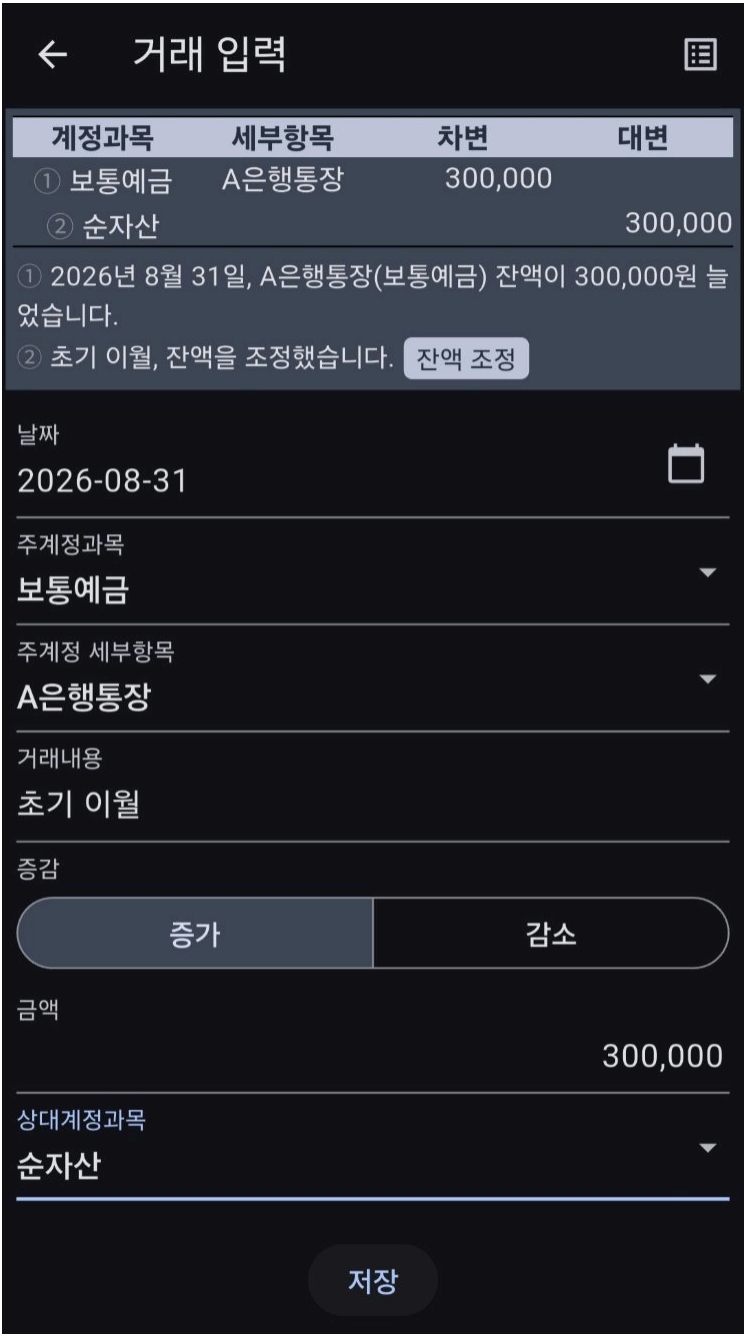
저희 부부의 경우 부부 공동 자산에 현금은 넣지 않습니다. 현금은 쓰자마자 기록하지 않으면 어디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 증빙도 없어서 나중에 빈 현금을 기타비용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보통예금의 경우 통장 잔액을 파악합니다. 이때 통장 잔액은 은행계좌별로 파악합니다. 가계부 적을 때 이 계좌의 별칭을 세부항목에 적을 겁니다. 계정과목 전체와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8장 표에 정리해 두었어요. 만약 지금이 9월이라면 8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이월잔액을 입력합니다.

- (차) 보통예금(A은행통장) 300,000 / (대) 순자산 300,000
- (차) 보통예금(B은행통장) 50,000 / (대) 순자산 50,000

`(차)` · `(대)` 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상대 계정과목에는 순자산(자본)을 씁니다. 순자산 계정과목을 쓰면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A은행통장
300,000
② 순자산
300,000
① 2026년 8월 31일, A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300,000원 늘었습니다.
② 초기 이월, 잔액을 조정했습니다.
잔액 조정
날짜
2026-08-31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A은행통장
거래내용
초기 이월
증감
증가
감소
금액
300,000
상대계정과목
순자산
저장

2-2) 적금, 정기예금 입력하기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있다면 세부항목을 하나씩 만들어서 입력합니다. 만약 만기가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경우 장기금융상품 계정과목을, 그렇지 않다면 단기금융상품 계정과목을 쓰면 됩니다.

- (차) 단기금융상품(A은행적금) 1,000,000 / (대) 순자산 1,000,000
- (차) 장기금융상품(C은행정기예금) 20,000,000 / (대) 순자산 20,000,000

2-3) 투자증권 입력하기

투자증권의 경우 증권 계좌의 일별 잔고(보유 종목 종가, 예수금의 합계액)를 입력합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D증권계좌) 12,000,000 / (대) 순자산 12,000,000

2-4) 임차보증금 입력하기

만약 전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낸 것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 (차) 임차보증금(A아파트) 50,000,000 / (대) 순자산 50,000,000

2-5) 투자부동산 입력하기

투자부동산의 경우 일반가계회계기준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경우 14장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부채 이월잔액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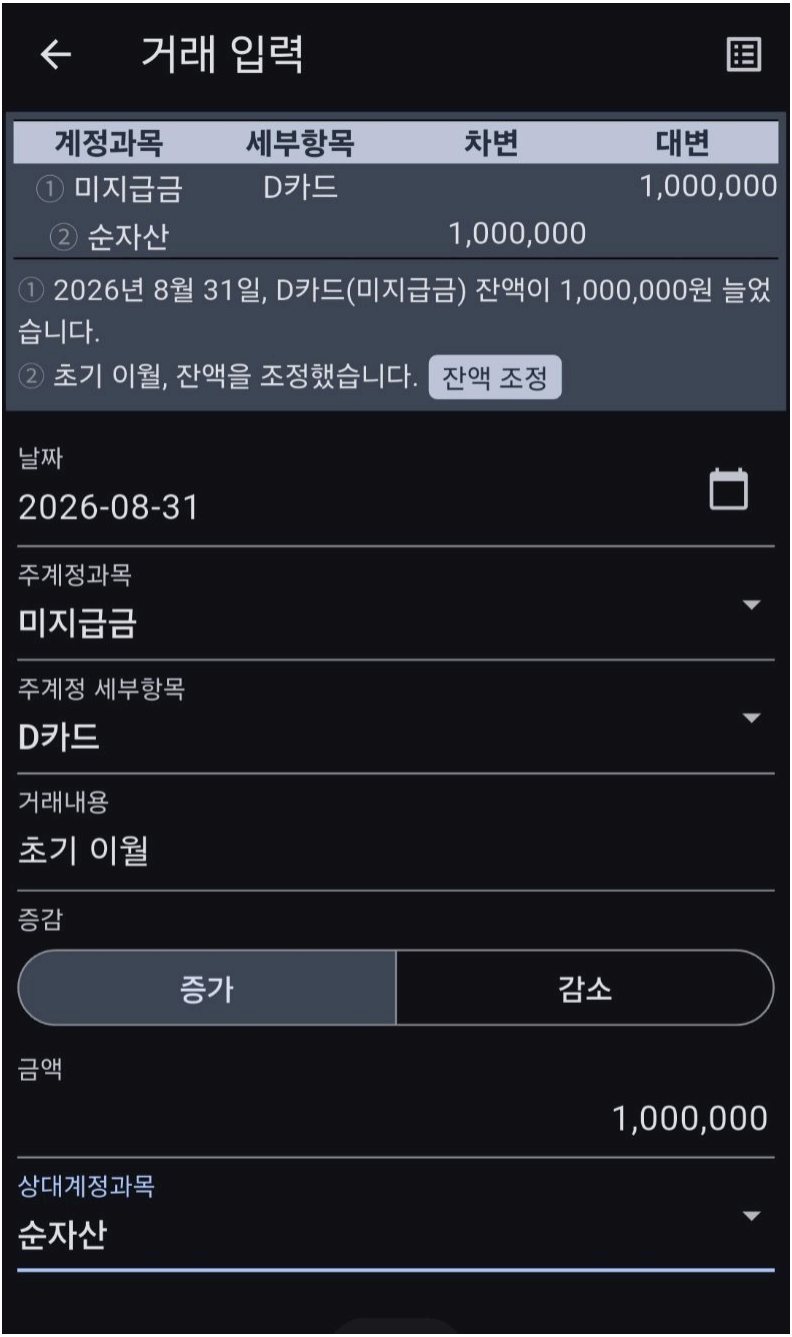
3-1) 미지급금(신용카드대금) 입력하기

신용카드 대금을 입력합니다. 사실 복식부기 장부에서 신용카드 입력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나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 13일 청구, 이런 식이면 다행이에요. 전달의 카드이용대금명세서(이번 달에 결제 예정인 명세)상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쓴 대금을 9월 25일에 청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미지급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 카드 미지급금 입력은 좀 미루고 결제일을 우선 변경할 것을 권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도 머리털 빠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가계부 쓰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차) 순자산 1,000,000 / (대) 미지급금(D카드) 1,00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미지급금
D카드
1,000,000
② 순자산
1,000,000
① 2026년 8월 31일, D카드(미지급금) 잔액이 1,000,000원 늘었습니다.
② 초기 이월, 잔액을 조정했습니다.
잔액 조정
날짜
2026-08-31
주계정과목
미지급금
주계정 세부항목
D카드
거래내용
초기 이월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000,000
상대계정과목
순자산



3-2) 미지급금(할부금) 입력하기

보통 신용카드의 이용대금명세서에는 할부금의 분할 청구 회차와 분할 청구 금액 및 수수료만 나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찾아서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달 청구 예정인 이용대금명세서에 X회차 분할 청구액이 있다면 빼고 넣습니다. 안 그러면 중복 입력이 되거든요.

- (차) 순자산 800,000 / (대) 미지급금(E카드) 800,000

할부금은 앞으로 갚을 때마다 빚이 줄어드는 식으로 입력할 겁니다.

3-3) 차입금 입력하기

차입금의 경우 간단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 원금 잔액을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 (차) 순자산 3,000,000 / (대) 단기차입금(A은행신용대출) 3,000,000

마이너스통장의 경우도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 밖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장기차입금으로 입력하면 돼요.

- (차) 순자산 50,000,000 / (대) 장기차입금(B은행전세자금대출) 5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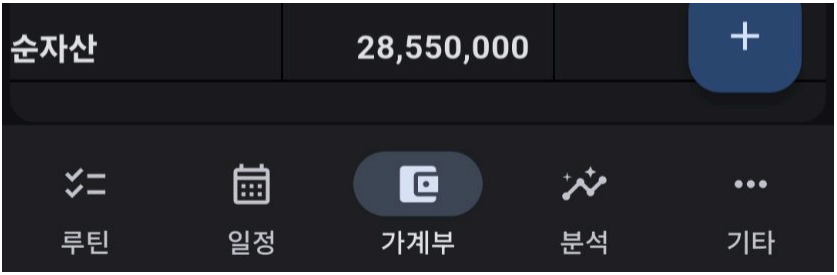
---

4. 전월 재무상태표 완성

지난달 말의 자산, 부채 값을 모두 넣고 나면 지난달 기준 재무상태표가 완성됩니다.



계정과목	2026년 08월	2026년 07월
I.유동자산	**1,350,000**	**0**
보통예금	350,000	0
단기금융상품	1,000,000	0
II.비유동자산	**82,000,000**	**0**
장기금융상품	20,000,000	0
임차보증금	50,000,000	0
장기투자증권	12,000,000	0
자산총계	**83,350,000**	**0**
I.유동부채	**4,800,000**	**0**
미지급금	1,800,000	0
단기차입금	3,000,000	0
II.비유동부채	**50,000,000**	**0**
장기차입금	50,000,000	0
부채총계	**54,800,000**	**0**



이제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재무상태표는 그에 따라 매월 변할 겁니다. 어때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지 않나요?

이 장에서 본 재무상태표는 부부노트 화면이에요. 부부가 한 장부를 함께 보며 지난달 말 잔액부터 적어 볼 수 있습니다.

Q&A

Q1. 1월 1일 잔액부터 입력해야 하나요?

1월 1일부터 가계부를 쓴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마는,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9월인데 소급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밀린 숙제하듯 가계부를 적는 것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번 달이 9월이라면 8월 31일 잔액을, 10월이라면 9월 30일 잔액을 입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간 재무 데이터는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쌓이거든요.

Q2. 잔액을 잘 모르겠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금액이 불확실한 건 대략적인 금액으로 적어두거나 아예 입력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실해졌을 때 수정하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Q3. 적금 만기가 1년 안으로 들어오면 유동으로 옮기나요?

일반가계회계기준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저희 부부의 경우 유동성 대체에 그렇게 공을 들이진 않아요. 만기 1년 이내의 적금이나 1년 이내 상환할 주담대 원금을 매월 옮기지는 않고, 연말에 한 번 정리합니다(17장 참고). 하지만 중요한 부동산 거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금 계획 실수 방지 차원에서 매월 말 유동성을 고려할 것 같긴 하네요.

10장. 복식부기 가계부 주담대 —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는 법

저도 복식부기 가계부를 쓰지 않았을 때는 통장에서 대출 원리금이 나가면 그냥 '지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부채' 자체에 대해 그렇게 자주 생각할 일이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 한 가계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게요.

재무상태표

기준 : 2026년 08월 31일 현재
비교 : 2026년 07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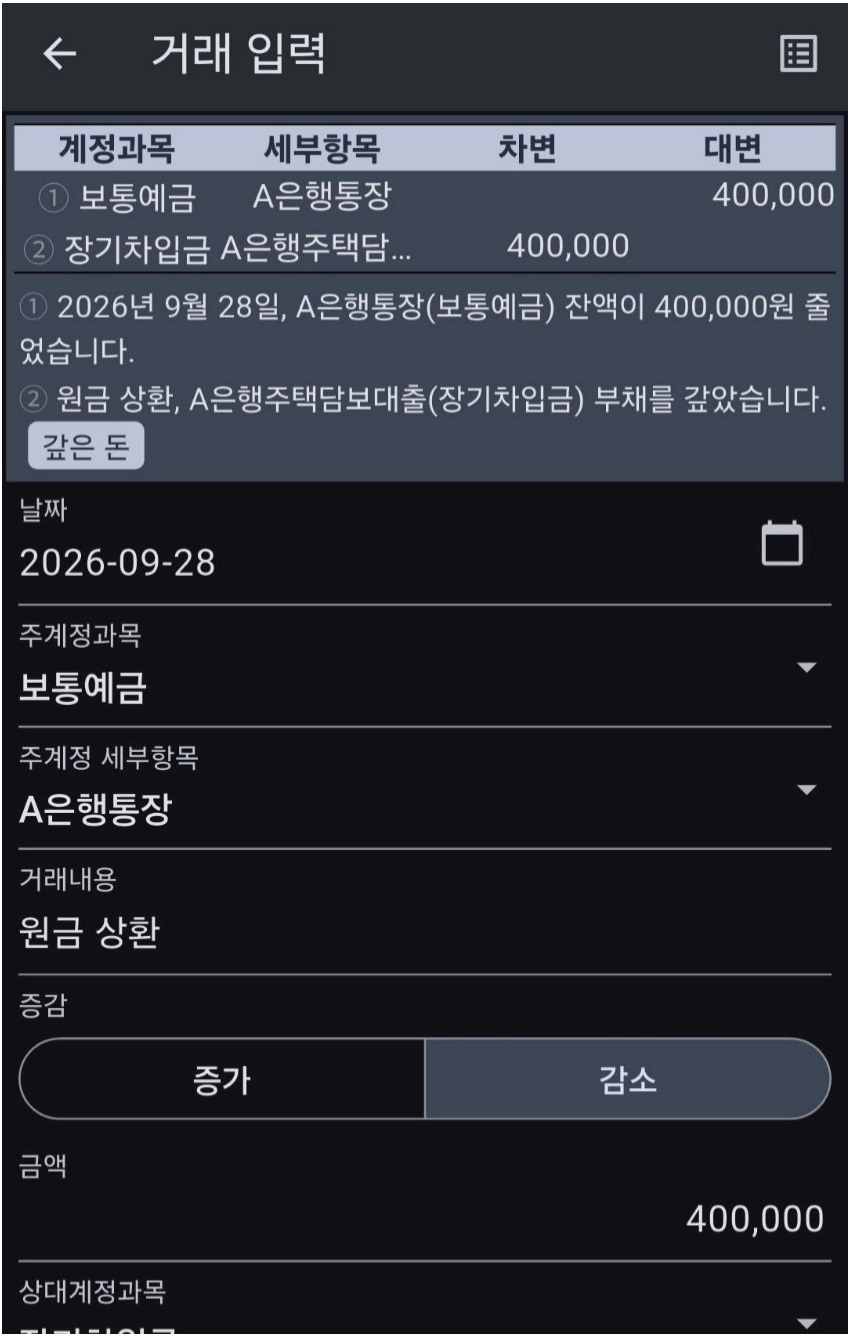
계정과목	2026년 08월	2026년 07월
I.유동자산	**2,000,000**	**0**
보통예금	2,000,000	0
II.비유동자산	**300,000,000**	**0**
투자부동산	300,000,000	0
자산총계	**302,000,000**	**0**
I.유동부채	**0**	**0**
II.비유동부채	**240,000,000**	**0**
장기차입금	240,000,000	0
부채총계	**240,000,000**	**0**
순자산	**62,000,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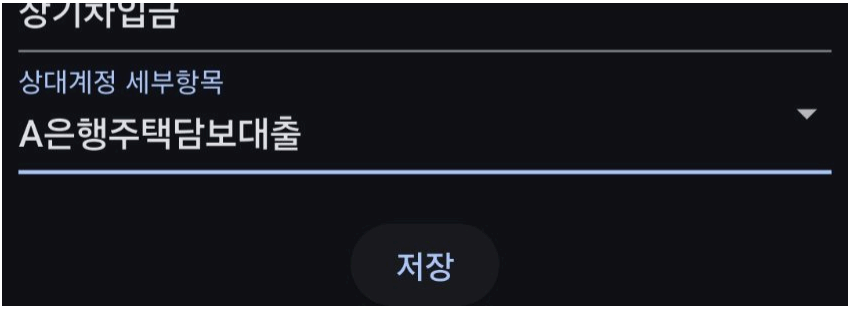
1. 한 줄을 두 줄로 가른다

복식부기 가계부를 쓸 때는 통장에 한 줄로 찍히는 '원리금'을 두 줄로 갈라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을 텐데요. 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차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 원금 상환: (차) 장기차입금(A은행주택담보대출) 400,000 / (대) 보통예금(A은행통장)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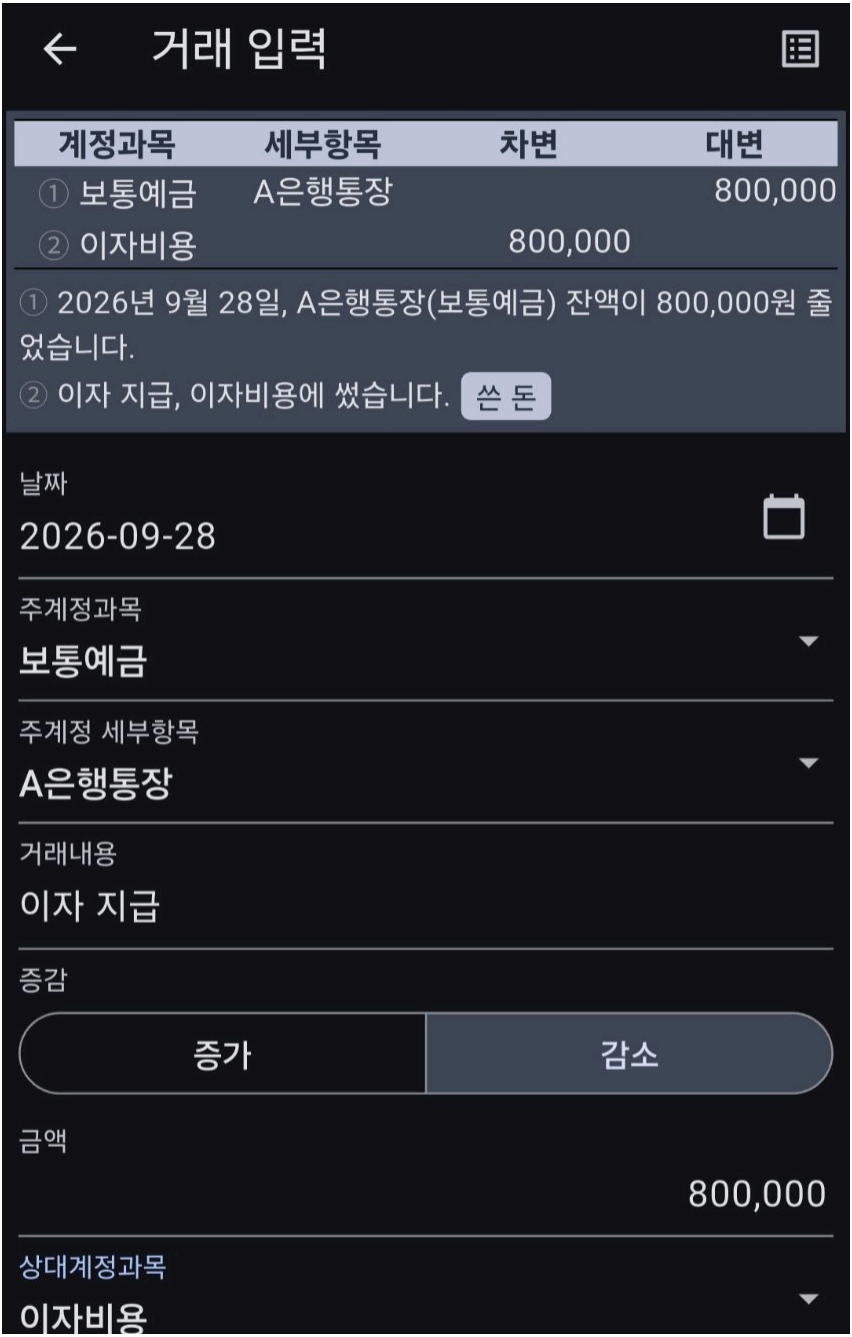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A은행통장 400,000
② 장기차입금 A은행주택담... 400,000
① 2026년 9월 28일, A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400,000원 줄었습니다.
② 원금 상환, A은행주택담보대출(장기차입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갚은 돈
날짜
2026-09-28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A은행통장
거래내용
원금 상환
증감
증가
감소
금액
400,000
상대계정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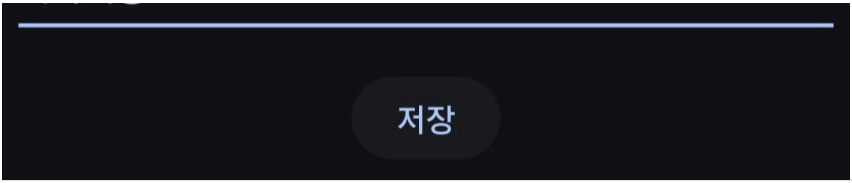


(차)·(대)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이자 지급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이자 지급: (차) 이자비용 800,000 / (대) 보통예금(A은행통장) 80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A은행통장 800,000
② 이자비용 800,000
① 2026년 9월 28일, A은행통장(보통예금) 잔액이 800,000원 줄었습니다.
② 이자 지급, 이자비용에 썼습니다.
쓴 돈
날짜
2026-09-28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A은행통장
거래내용
이자 지급
증감
증가
감소
금액
800,000
상대계정과목
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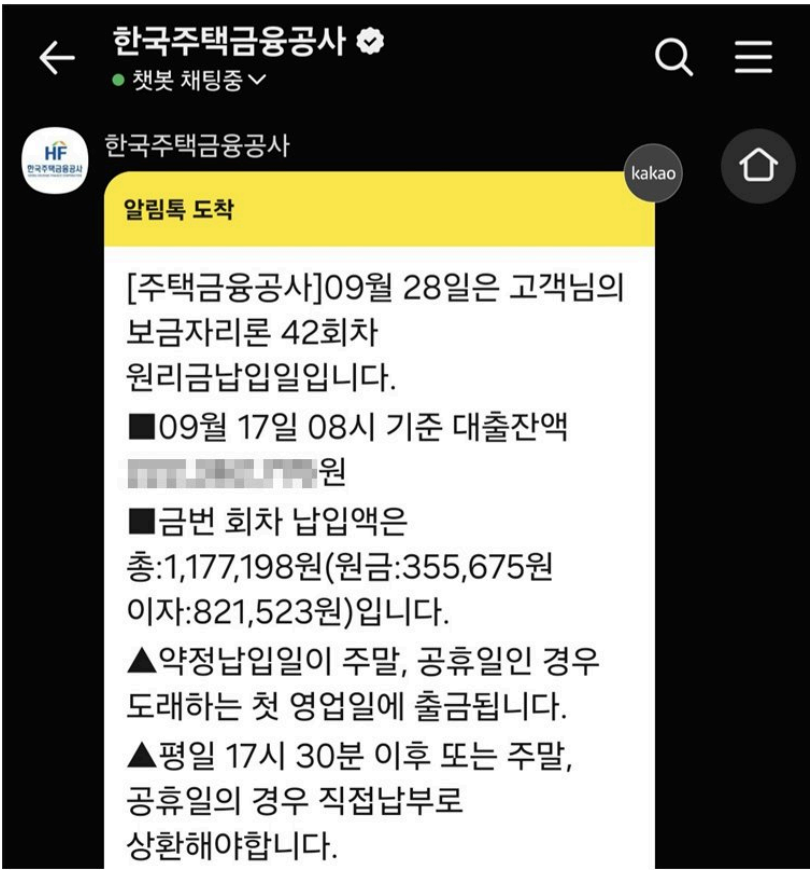
2. 어디서 보고 가르나

대출 원리금의 원금과 이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상환 스케줄표를 보면 됩니다.



회차	상환예정일자		상환예정금액				구간별 이자계산	
	일자	영업일자	원리금	원금	이자	상환후 예정잔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1	2023-04-24	2023-04-24	1,543,216	397,915	1,145,301		2023-03-24	2023-04-23
2	2023-05-24	2023-05-24	1,493,475	422,295	1,071,180		2023-04-24	2023-05-23
3	2023-06-24	2023-06-26	1,443,484	375,104	1,068,380		2023-05-24	2023-06-23
4	2023-07-24	2023-07-24	1,418,592	403,894	1,014,698		2023-06-24	2023-07-23
5	2023-08-24	2023-08-24	1,398,500	366,249	1,032,251		2023-07-24	2023-08-23
6	2023-09-24	2023-09-25	1,398,500	367,602	1,030,898		2023-08-24	2023-09-23

요즈음은 원리금 상환일 전에 원리금 총액과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3. 가르면 무엇이 보이나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가 줄어들고, 손익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재무상태표

기준 : 2026년 09월 28일 현재
비교 : 2026년 08월 31일 현재

계정과목	2026년 09월	2026년 08월
I.유동자산	**800,000**	**2,000,000**
보통예금	800,000	2,000,000
II.비유동자산	**300,000,000**	**300,000,000**
투자부동산	300,000,000	300,000,000
자산총계	**300,800,000**	**302,000,000**
I.유동부채	**0**	**0**
II.비유동부채	**239,600,000**	**240,000,000**
장기차입금	239,600,000	240,000,000
부채총계	**239,600,000**	**240,000,000**
순자산	**61,200,000**	**62,000,000**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보통예금)이 120만 원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부채(장기차입금)가 40만 원 줄어들어서 순자산은 8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데, 자산이 줄면 순자산이 줄고, 부채가 줄면 순자산은 늘어나는 구조죠.

> 수식: 자산 - 부채 = 순자산
> 계산 값: -12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이걸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두 개로 나누어서 볼게요.

자산(보통예금) 40만 원으로 부채(장기차입금) 40만 원을 갚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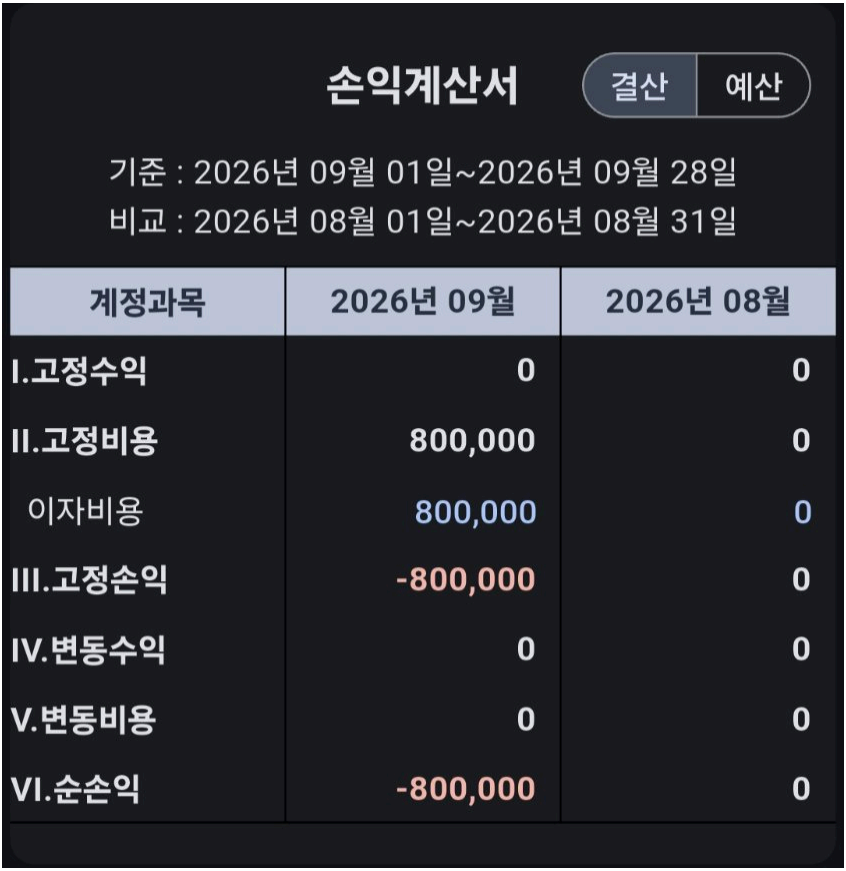
> 계산 값: -40만 원 - (-40만 원) = 0원

원금을 갚는 행위는 자산과 부채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산(보통예금) 80만 원으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계산 값: -80만 원 - 0원 = -80만 원

이자의 지급으로 순자산이 80만 원만큼 감소했습니다.



손익계산서

결산 예산

기준 : 2026년 09월 01일~2026년 09월 28일
비교 : 2026년 08월 01일~2026년 08월 31일

계정과목	2026년 09월	2026년 08월
I.고정수익	0	0
II.고정비용	800,000	0
이자비용	800,000	0
III.고정손익	-800,000	0
IV.변동수익	0	0
V.변동비용	0	0
VI.순손익	-800,000	0

순자산이 80만 원만큼 감소한 것은 손익계산서상 순손익이 -80만 원인 것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순손익은 순자산의 변동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순손익이 -80만 원이면 그 기간 동안 순자산이 80만 원만큼 줄어들고, 반대로 순손익이 100만 원이면 그 기간 동안 순자산이 100만 원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4. 결론

복식부기 가계부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순손익이라는 걸요. 순손익을 늘리면 순자산이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부부가 조금 덜 가난해지는 거죠.

순손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야 하는데요. 아낄 수 있는 비용 안에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이자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부채의 원금을 갚거나 금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익을 늘리거나 투자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주된 수입원에서 수익을 늘리려고 누구나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자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자비용과 투자수익이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자비용은 확정적이고 투자수익은 불확실하다는 것을요.

만약 본인의 투자 실력이 몇 년간 본인의 대출 이자율이나 시장 수익률(S&P500이나 KOSPI 등)을 꾸준히 넘을 정도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면, 대출 원금을 중도상환하는 것(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해서)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까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캡처는 저희 부부가 쓰는 가계부 앱 부부노트 화면입니다.

Q&A

Q1. 1년 안에 갚을 원금은 유동부채로 옮기나요?

9장 Q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장. 복식부기 가계부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은 안전한 자산일까

9장의 2-4절에서 전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낸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차) 임차보증금(A아파트) 50,000,000 / (대) 순자산 50,000,000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차)·(대)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

1. 전세보증금은 자산이다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3조 제3항 제1호)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전세(임대차) 계약의 결과로 현재 가계가 그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그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입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상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죠.

전세보증금의 경우 장부상 한번 인식하고 나면 액면 그대로 장부에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떤 자산일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2. 전세보증금은 안전한 자산이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덜컥 1억 원 넘는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자산

과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잘못하면 전부 혹은 일부를 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자산인 것이죠.

저희도 신혼 초에 전셋집을 구해서 살았었는데요. 겁도 없이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다른 집을 전세로 구했었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래였더라고요. 나중에 그 건물이 통째로 LH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한시름 놓았지만, 그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가슴속 한편에서 떠나질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전세보증금은 떼일 확률이 0%가 아닌, 위험이 있는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계회계기준이 전세보증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계가 손실 확률과 예상 손실금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부상 떡하니 있는 거금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3.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다?

월세의 경우 장부상 매달 돈이 나갑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겠죠.

- (차) 임차료 2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장부상 잡히는 비용이 없습니다. 떼이지 않고서야(대손상각비) 말이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대출의 비용이지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럼 월세보다 전세가 더 우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의 한계점 한 가지를 인정해야겠습니다. 회계는 경제적 비용은 인식할 수 있어도, 기회비용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대가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대신 월세로 매달 20만 원을 내는 선택을 했다면, 일단 첫 달에 4,980만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 더 나은 투자안이 있다면 투자할 수도 있겠죠.

회계는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묶일 경우 기회비용이 꽤 크게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4. 전세보증금은 자산 증식에 도움 되는 자산이다?

자산 증식은 뭘까요? 순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 함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말해요. 1억 원 빚을 내서 통장에 1억 원이 쌓이는 건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건 자산 증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산 증식은 엄밀히 따지면 순자산 증식입니다.

순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아끼는 방법, 그리고 모아둔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방법.

전세보증금은 스스로 불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구매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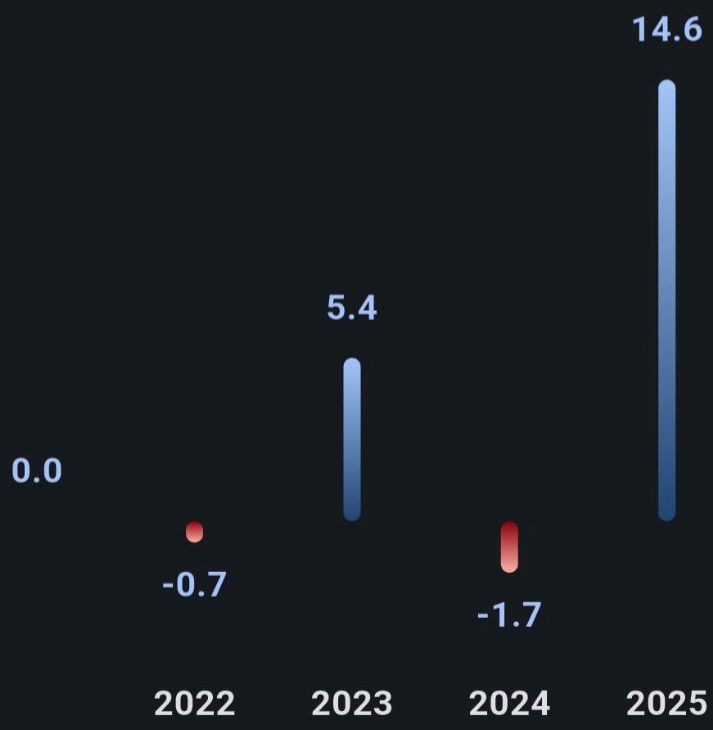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은 위험하고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는 우선 전세보증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순자산이 일하지 않고도 스스로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부부노트 재무분석 화면의 '가계 순자산 투자수익률' 차트로 볼 수 있어요. 보증금처럼 놀고 있는 돈이 많을수록 이 숫자는 낮아집니다.

가계 순자산 투자수익률

한 해 동안 투자로 얻거나 잃은 금액이 우리 집 순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줍니다. 투자손익 ÷ (기초 순자산 + 잉여 ÷ 2) × 100으로 계산합니다. 기초 순자산은 연말 순자산에서 순이익을 뺀 금액이고, 잉여는 순이익에서 투자손익을 뺀 금액입니다.

(단위: %)



12장. 복식부기 가계부 신용카드 할부 — 미지급금으로 적고 월말에 맞추는 법

신용카드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도록 설계된 결제 시스템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빚이 생기는 거죠.

단식부기 가계부에는 신용카드 대금 잔액을 적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식부기는 부채를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 지출로 기록하거나, 현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시 지출로 기록하되 부채 잔액 기록은 포기합니다.

이 장에서는 복식부기 가계부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기록하여 부채 잔액까지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신용카드 사용 시

1) 미지급금(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채가 늘어납니다. 만약 떡볶이를 신용카드로 사 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하겠죠.

> (차) 식비 25,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25,000

(차)·(대)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2) 미지급금(할부금)

이번에는 휴대폰을 할부로 샀다고 해봅시다. 180만 원짜리 36개월 무이자 할부예요.

> (차) 비품구입비 1,800,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1,800,000

미지급금(XX카드) 잔액은 1,825,0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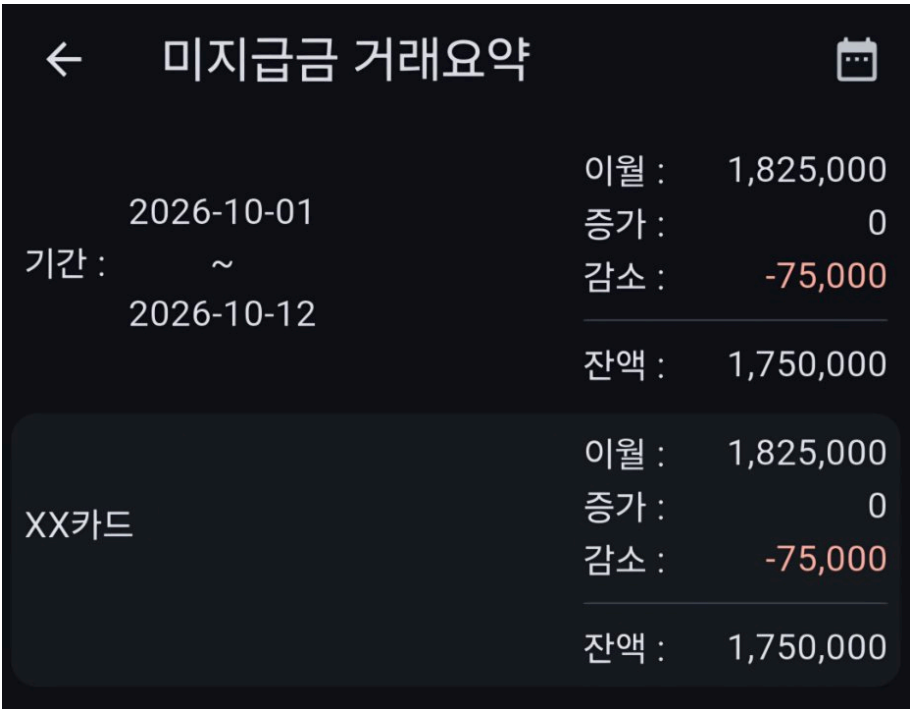
2. 신용카드 대금 지급 시

이용대금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지난달 사용액 25,000원과 휴대폰의 첫 할부금(1,800,000 × 1/36 =) 50,000원, 총 75,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차) 미지급금(XX카드) 75,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75,000

미지급금(XX카드) 잔액은 1,825,000원에서 75,000원이 줄어 1,750,000원입니다.



3. 신용카드 잔액 맞추기

1) 위 사례에 이어

신용카드 잔액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게, 그 달 이용내역은 이용대금명세서를 봐야 하고 할부 잔액은 별도의 화면(카드사별로 화면이 다를 수 있음)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할부금 잔액은 1,750,000원이 맞습니다. 장부상 미지급금도 1,7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5개월 동안 갚아야 할 빚입니다.

2) 신용카드를 긁지 않았는데 청구된 비용 등이 있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떡볶이를 사 먹고 휴대폰을 할부로 산 것까지 똑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떡볶이 사 먹을 때: (차) 식비 25,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25,000
> 휴대폰 샀을 때: (차) 비품구입비 1,800,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1,800,000

그런데 이용대금명세서를 보니 85,000원이 적혀 있었고 그 돈이 출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금액
XX떡볶이	25,000원
연회비	10,000원
할부(1회/36회)	50,000원

어쨌든 출금되었으니 회계처리를 합니다.

> (차) 미지급금(XX카드) 85,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85,000

카드값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나간다면 13장을 참고하세요.

연회비 1만 원이 누락되었었네요. 추가로 기록해줍니다.

> (차) 기타비용 10,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10,000

연회비 1만 원을 추가하기 전 월말 미지급금 잔액은 1,740,000원이었을 겁니다. 휴대폰 할부금 잔액 1,750,000원보다 10,000원 적었던 것이죠.

이렇듯 카드 미지급금 잔액은 월말에 이용대금명세서 등과 대조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부부노트는 일반가계회계기준을 준용해 만든, 부부가 함께 쓰는 복식부기 가계부입니다. 카드마다 미지급금을 따로 두고, 월말에 그 잔액을 이용대금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어요.

Q&A

Q1. 월말 신용카드 대금이 몇백 원씩 차이가 나요.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 할인, 취소, 환불, 연회비, 수수료 등 생각보다 많은 거래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에 카드 거래건수가 몇 건 안 되면 몰라도 수십 건이 넘어가면 미지급금 잔액과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저희 부부의 경우 집요한 성격 탓에 끝까지 찾아내었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월말에 기타비용이나 기타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엄밀하지는 않지만 가계부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13장. 복식부기 가계부 마이너스통장 회계처리 — 단기차입금으로 적고 월말에 맞추는 법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단기차입금을 가계부에 쓰는 법을 정리하였습니다.

---

1. 체크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마이너스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식비 25,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25,000

(차)·(대)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

2.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통장으로 결제하는 신용카드로 떡볶이를 사 먹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식비 25,000 / (대) 미지급금(XX카드) 25,000

(신용카드 미지급금 회계처리가 낯설 경우 12장 참조)

그리고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죠.

> (차) 미지급금(XX카드) 25,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25,000

카드 빚이 사라지고 마이너스통장 빚이 늘어나는 회계처리입니다.

---

3. 이자 발생 시 회계처리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냥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늘어납니다.

> (차) 이자비용 10,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

4. 0원을 오가는 날

1) 정석적인 회계처리

열심히 빚을 갚아서, 마이너스통장이 0원을 오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참 귀찮아지는데요.

저희 부부의 경우 귀찮음을 무릅쓰고 일일이 음수가 되면 단기차입금으로, 양수가 되면 보통예금으로 계정과목을 바꿔주는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25,000원에서 30,000원이 되는 때 회계처리

> (차)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25,000 / (대) 기타수익 25,000
> (차)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 30,000 / (대) 기타수익 30,000

-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30,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 때 회계처리

> (차) 식비 30,000 / (대)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 30,000
> (차) 식비 10,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

2) 결산 때만 정리하는 회계처리

위의 회계처리는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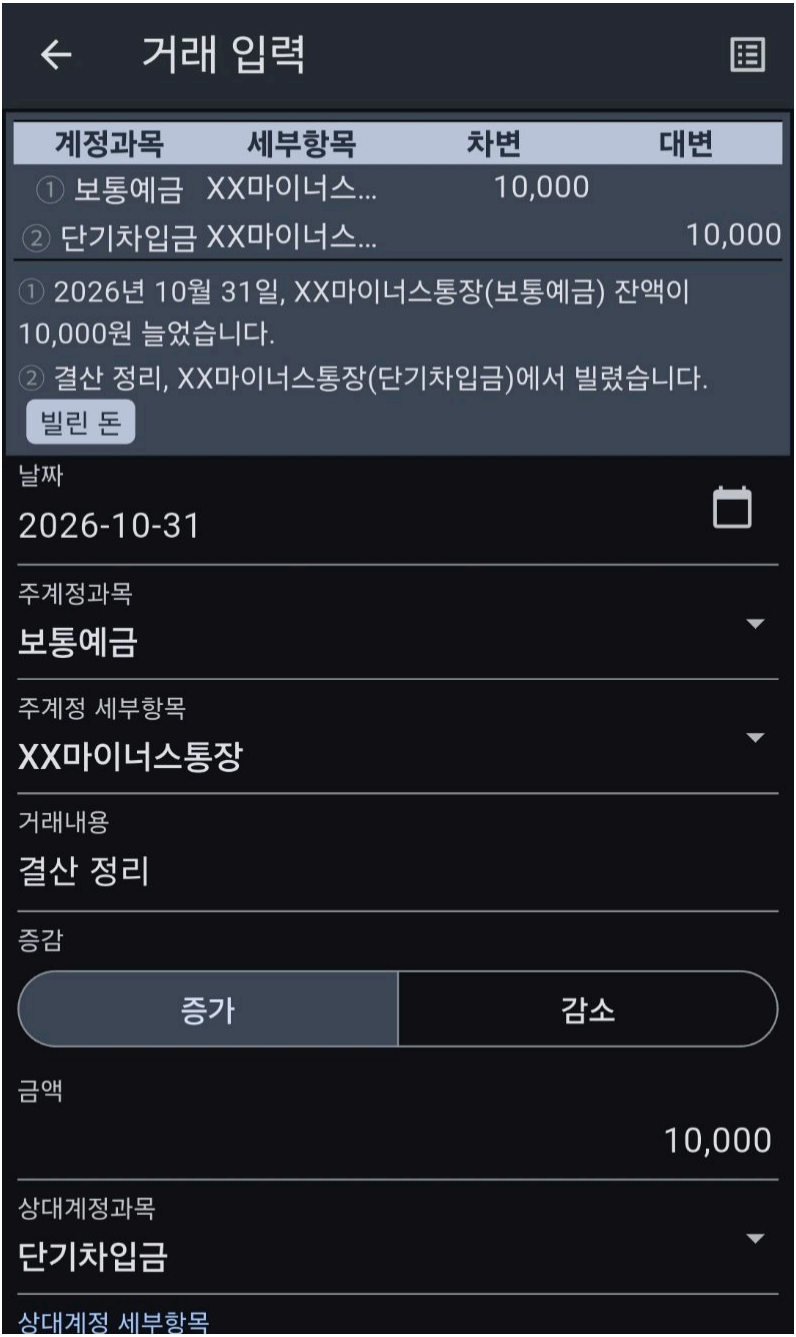
-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30,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 때 회계처리

> (차) 식비 40,000 / (대)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 40,000

이 경우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의 재무상태표상 잔액은 -10,000원이 됩니다.

평소에는 마이너스통장의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무시하고 관리 차원에서 기록하다가 월말이나 연말에 결산할 때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죠.

> (차)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 (대)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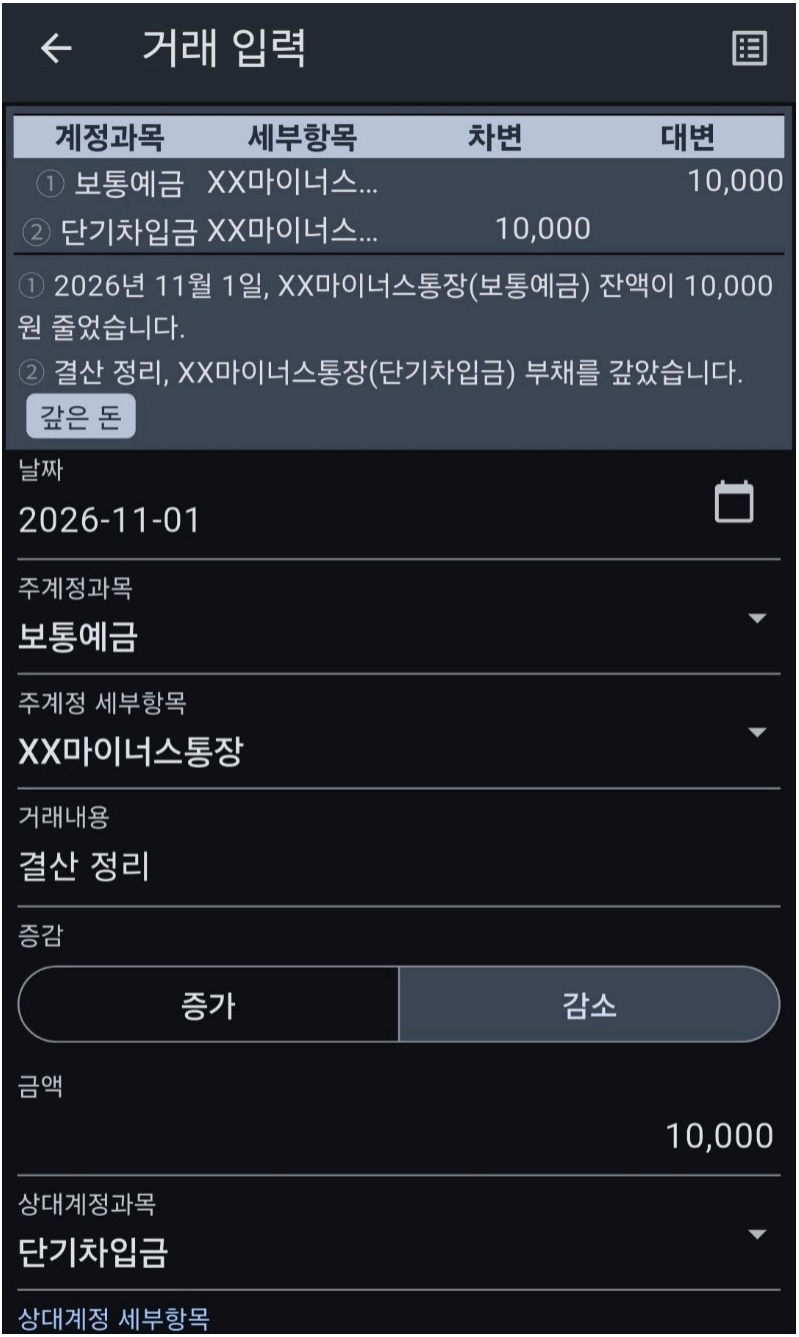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XX마이너스... 10,000
② 단기차입금 XX마이너스... 10,000
① 2026년 10월 31일, XX마이너스통장(보통예금) 잔액이 10,000원 늘었습니다.
② 결산 정리, XX마이너스통장(단기차입금)에서 빌렸습니다.
빌린 돈
날짜
2026-10-31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XX마이너스통장
거래내용
결산 정리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0,000
상대계정과목
단기차입금
상대계정 세부항목



위의 정리를 통해 보통예금 마이너스 잔액은 사라지고 차입금 10,000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월말이나 연말의 다음 월초나 연초에 다음과 같이 정리 회계처리를 다시 없앱니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 보통예금이 살아나죠.

> (차) 단기차입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 (대) 보통예금(XX마이너스통장) 10,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보통예금 XX마이너스... 10,000
② 단기차입금 XX마이너스... 10,000
① 2026년 11월 1일, XX마이너스통장(보통예금) 잔액이 10,000 원 줄었습니다.
② 결산 정리, XX마이너스통장(단기차입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갚은 돈
날짜
2026-11-01
주계정과목
보통예금
주계정 세부항목
XX마이너스통장
거래내용
결산 정리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0,000
상대계정과목
단기차입금
상대계정 세부항목



이 장의 캡처는 부부노트 화면입니다.

14장. 복식부기 가계부 아파트 — 집값을 매년 다시 적는 법

우리 아파트 값이 1억 원 올랐으면 그만큼 우리 순자산도 1억 원 늘어난 걸까요? 만약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세율이 70%가 적용된다면요?

부동산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세금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시각각 양도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가 바뀌죠. 금액이 크다 보니 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은 시세에서 예상되는 부대비용(세금 등)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라 투자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효과를 늘 인지하고 자신의 순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번 장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계산과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7조 제1항)

한마디로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X3년에 4.6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계약금(20X3년 1월): (차) 투자부동산 46,000,000 / (대) 보통예금 46,000,000

> 중도금(20X3년 1월): (차) 투자부동산 20,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0

> 잔금(20X3년 3월, 내 돈): (차) 투자부동산 74,000,000 / (대) 보통예금 74,000,000
> 잔금(20X3년 3월, 주담대): (차) 투자부동산 320,000,000 / (대) 장기차입금 320,000,000

계산의 편의를 위해 중개수수료 등은 생략했습니다. 이하 평가 시에도 같습니다.

(차)·(대)가 낯설다면 4장부터 읽어 보세요.

---

2. 투자부동산의 평가

1) 평가 기준

최초 인식 후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7조 제3항)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KB시세 일반평균 매매가액을 공정가치로 본다.
2. 제1호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로 회계연도 말에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계산한다.
3. 제1호에서 계산한 공정가치에서 제2호에서 계산한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때 종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2) 취득연도 평가

20X3년 말, 우선 KB시세에서 연말 기준 우리 집의 시세를 찾아보니 550,00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샀을 때보다 올랐네요. 분명 기뻐할 일입니다.

이번엔 우리 아파트를 20X3년 말에 팔 경우 얼마의 세금 등을 내는지 계산해봅니다. (인터넷에 무료 양도소득세 계산기, 혹은 AI 사용 가능) 양도가액 5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60,000,000원을 빼면 양도차익이 90,000,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X3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70%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90,0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70% =) 61,25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125,000원입니다. 세금만 67,375,000원이에요.

투자부동산의 평가액 550,000,000원에서 처분 시 부대비용 67,375,000원(중개수수료 등 생략)을 차감한 482,625,000원이 투자부동산의 20X3년 말 현재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됩니다.

투자부동산의 연말 순실현가능가치 482,625,000원과 종전 부동산 장부금액 460,000,000원의 차이를 투자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평가(20X3년 12월 31일): (차) 투자부동산 22,625,000 / (대) 투자자산평가이익 22,625,000

20X3년 3월에 집을 산 후 약 9개월이 지난 후 집값이 9천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금 등 효과를 보면 실제로 가계의 순자산은 2천만 원 남짓 올랐을 뿐입니다.

---

3. 투자부동산의 후속 평가

1) 20X4년

20X4년 말에는 부동산 시세가 530,000,000원으로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20X4년 말에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530,000,000원 - 460,000,000원 =) 70,000,000원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니 양도소득세율은 60%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70,0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60% =) 40,500,000원, 지방소득세는 4,050,000원입니다. 합하면 44,550,000원이 됩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액 530,000,000원에서 처분 시 부대비용 44,550,000원(중개수수료 등 제외)을 차감한 485,450,000원이 20X4년 말 현재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됩니다.

투자부동산의 연말 순실현가능가치 485,450,000원과 종전 부동산 장부금액 482,625,000원의 차이를 투자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평가(20X4년 12월 31일): (차) 투자부동산 2,825,000 / (대) 투자자산평가이익 2,825,000

20X4년은 특이하죠. 부동산 시세가 작년보다 20,000,000원 떨어졌지만 세율이 70%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절세 효과가 22,825,000원으로 작년보다 커졌어요. 결과적으로 투자부동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825,000원만큼 늘어났고요.

---

2) 20X5년

20X5년 말에는 부동산 시세가 545,000,000원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20X5년 말에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545,000,000원 - 460,000,000원 =) 85,000,000원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함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나 조건 등을 열거하지 않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함.)

투자부동산의 평가액 545,000,000원에서 처분 시 부대비용 0원(중개수수료 등 제외)을 차감한 545,000,000원이 20X5년 말 현재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됩니다.

투자부동산의 연말 순실현가능가치 545,000,000원과 종전 부동산 장부금액 485,450,000원의 차이를 투자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평가(20X5년 12월 31일): (차) 투자부동산 59,550,000 / (대) 투자자산평가이익 59,550,000

이렇듯 투자부동산의 경우 세금의 효과가 절대적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할지에 따라 평가액도 크게 달라지겠죠. 만약 갭투자자라면 이러한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쇼핑하듯 남의 전세금으로 집을 사 모아 놓고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다가 큰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은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투자부동산에 대한 예상 세금을 고려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년 12월 31일, 이 평가 분개 한 줄을 부부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투자부동산이 시세가 아니라 '팔면 손에 남는 돈'으로 바뀌어 있어요.

Q&A

Q1.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낡지만, 낡은 건물은 재건축을 통해 다시 새 건물이 되죠. 시세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은 장부가격과 시세가 동떨어지게 만들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계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대응할 수익이 없거나 시세차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반가계회계기준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Q2. 중개수수료를 예시에서 뺐는데 실제로는 넣나요?

저희 가계의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합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부대비용에도 들어가고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도 들어가니까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장. 복식부기 가계부 주식 기록방법 — 매매는 안 적고 세 가지만 적는다

주식은 가계부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적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1. 왜 주식을 가계부에 넣어야 하나

우리 가계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예적금, 투자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자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스스로 증식을 하면서 우리 가계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계의 자산이 스스로 얼마나 증식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산을 가계부에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식이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자산은 스스로 얼마나 증식을 해야 잘한 걸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가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불어나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손해는 아니게 됩니다.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2%였는데 우리 가계의 자산이 1% 불어났다면 사실은 1%p만큼 가난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가끔 적금 만기 이자 탔다고 한턱내고 그러시는데, 겨우 원금의 구매력을 지켜 준 돈을 받아놓고 그걸 써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는 행위죠.

아무튼,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을 가계부에서 다루지 못하면, 자산이 스스로 얼마나 증식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가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가계부에 기록하고 매년 투자손익을 평가해야 합니다.

2. 적는 때 셋, 안 적는 때 하나

그렇다고 가계부 기록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식 관련해서 가계부에 적는 때는 셋, 안 적는 때는 하나인데요. 안 적는 하나가 바로 주식을 사고팔 때입니다.

적는 것	안 적는 것
- 계좌에 돈을 넣고 뺄 때	- 주식을 사고팔 때
- 배당이 들어올 때	
- 연말에 평가할 때(일반가계회계기준 제18조)	

증권계좌를 하나의 돈 주머니로 보면 됩니다. 주머니 안에 내가 돈을 넣거나 뺄 때 기록하고, 배당으로 주머니가 불어나면 기록하고, 연말에 주머니의 크기(혹은 무게)를 재서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종목을 사고파는 건 주머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매일의 평가손익은 무시합니다.

---

3. 분개 예시 — 1년

1) 증권계좌로 이체

증권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A증권) 1,00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1,000,000

2) 종목 매입

S전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증권계좌 예수금이 줄고 보유 종목이 늘었어요. 별도로 분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3) 배당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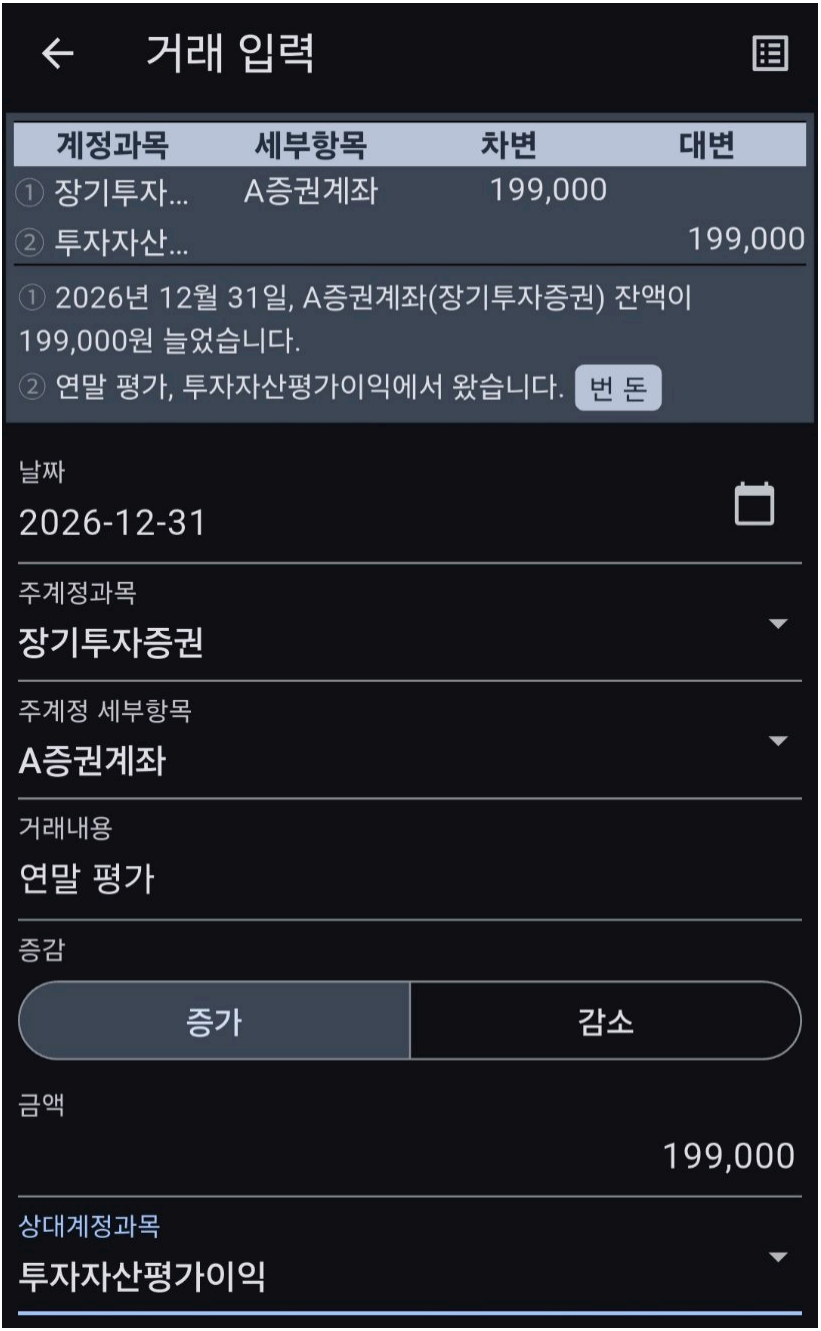
S전자가 배당을 했습니다. 예수금이 1,000원 늘었어요. 기록해줍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A증권) 1,000 / (대) 배당수익 1,000

4) 연말 평가

연말 증권계좌의 보유 종목 종가와 예수금 합계액은 1,200,000원입니다. 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000,000원 + 1,000원 =) 1,001,000원이고요. 차액인 199,000원의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A증권) 199,000 / (대) 투자자산평가이익 199,000


거래 입력
계정과목
세부항목
차변
대변
① 장기투자...
A증권계좌
199,000
② 투자자산...
199,000
① 2026년 12월 31일, A증권계좌(장기투자증권) 잔액이 199,000원 늘었습니다.
② 연말 평가, 투자자산평가이익에서 왔습니다.
번 돈
날짜
2026-12-31
주계정과목
장기투자증권
주계정 세부항목
A증권계좌
거래내용
연말 평가
증감
증가
감소
금액
199,000
상대계정과목
투자자산평가이익

해외주식이나 외화예금이 있다면 16장을 참고하세요.

증권계좌를 하나의 주머니로 보고 주머니에서 들어오고 나간 것, 그리고 스스로 부풀고 쪼그라든 것만 가계부에 적으면 간단합니다.

우리 집 자산 전체가 올해 얼마나 스스로 불어났는지는 부부노트 재무분석 화면의 '가계 순자산 투자수익률' 차트로 볼 수 있어요. 연말 평가 한 줄이 그 숫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6장. 복식부기 가계부 해외주식 회계처리방법 — 앱의 원화 평가액을 그대로 적는다

이 장에서는 해외주식과 외화예금을 가계부에 기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왜 원화로 재나

해외주식이 되었든 외화가 되었든, 가계부에는 원화로 기록합니다. 만약 자산들을 각자의 화폐 단위로 기록할 경우 전체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부동산이 4억 원, 미국 주식이 3만 달러 등등이 있다고 하면 대체 자산이 얼마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해외 자산은 원화로 환산해주는 겁니다.

외화예금, 외화주식의 거래와 평가 모두 원화로 기록합니다. 외화 금액의 경우 거래내역에 기록하면 되겠죠.

---

2. 외화예금

1) 외화 환전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100달러로 환전하였습니다. 환전에 적용된 환율은 달러당 1,350.9원입니다.

> (차) 보통예금(A외화예금) 135,090 / (대) 보통예금(OO은행) 135,090

외화를 사거나 팔 때에는 거래은행이 실제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9조 제2항 제1호)

2) 이자 수익

이자가 1달러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에 원화 또는 적용 환율이 표기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상세 거래내역의 적용 환율 1,329.3원)

> (차) 보통예금(A외화예금) 1,329 / (대) 이자수익 1,329

만약 은행 앱에 원화 또는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 외화를 사고팔지 않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외화가 들어 있는 계좌가 원화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9조 제2항 제2호) 현물환율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로 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9조 제1항 제3호)

3) 원화 환전

외화 계좌에서 5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였습니다. 적용 환율은 1,307.6원입니다.

> (차) 보통예금(OO은행) 65,380 / (대) 보통예금(A외화예금) 65,380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합니다. 다만,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결제한 원화 금액만큼 장부금액을 줄인 뒤, 그 차이를 회계연도 말 환산에서 생기는 외화환산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9조 제5항)

4) 외화 평가

연말 예금 잔액은 (100달러 + 1달러 - 50달러 =) 51달러입니다. 연말 앱의 적용 환율은 1,325.5원이고 67,601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부금액은 (135,090원 + 1,329원 - 65,380원 =) 71,039원입니다. 그 차액을 외화환산손실로 인식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9조 제3항)

> (차) 외화환산손실 3,438 / (대) 보통예금(A외화예금) 3,438

---

3. 해외주식

1) 증권계좌로 이체

증권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B증권) 1,00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1,000,000

가능한 금액만큼 달러로 환전하였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이었고 수수료를 떼고 713.92달러를 환전하고 원화는 12원이 남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돈이 움직인 것이므로 환전은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2) 종목 매입

S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별도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3) 배당 인식

배당을 1달러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을 당시 증권 앱의 적용 환율은 달러당 1,338원이었습니다. 배당수익을 인식합니다.

> (차) 장기투자증권(B증권) 1,338 / (대) 배당수익 1,338

외화 배당금의 원화 금액은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에 적힌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4) 연말 평가

연말 증권계좌의 보유 종목 종가와 예수금 합계액은 730달러, 12원입니다. 연말 마감환율은 달러당 1,280원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연말 증권계좌의 평가액은 (730

달러 × 1,280원 + 12원 =) 934,412원입니다. 증권 앱에서의 잔고금액과 일치합니다. (만약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면 증권사 앱의 금액을 적습니다.) 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1,001,338원이고요. 차액인 66,926원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차) 투자자산평가손실 66,926 / (대) 장기투자증권(B증권) 66,926

이때, 화폐성외화자산(현금, 예금 등)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경우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주식, 부동산 등)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경우 투자자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 유가증권의 경우 증권계좌의 총평가액과 예수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종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18조 제2항)

---

4. 맺음

외화는 그냥 앱에 나와 있는 원화 금액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기업회계처럼 환전할 때마다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려 하면 외화의 수불부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원가흐름의 가정(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도 들어가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순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불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얻는 게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구분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계의 순자산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핵심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의 분개는 모두 부부노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과 증권계좌를 계좌 하나씩으로 두고, 연말에 앱이 보여 주는 원화 숫자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17장. 복식부기 가계부 재무상태표 보는 법 — 매일은 잔액만, 연말에 다 본다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머리 아플 것 같죠. 하지만 막상 가계부를 써보면 쓰는 계정과목만 매일 쓰고 나머지 계정과목은 몇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볼 뿐입니다.

이 장에서는 복식부기 가계부 재무상태표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재무상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

기준 : 2026년 10월 26일 현재
비교 : 2026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2026년 10월	2026년 09월
I.유동자산		
보통예금		
선급금		
단기금융상품		
II.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투자부동산		
장기보증금		
자산총계		
I.유동부채		
II.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부채총계		
순자산		

위 재무상태표는 저희 가계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9장 참고)이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유동, 비유동 순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4조 제1항) '비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하고요. (일반가계회계기준 제5조 제1항)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6조 제1항)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일반가계회계기준 제7조 제1항)

---

2. 매일 보는 곳 — 위쪽 잔액

재무상태표에 계정과목이 여럿 있더라도 사실 매일 보는 곳은 위쪽 계정과목 두세 개뿐입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각자 생활비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공동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에 사용내역을 기록하죠.

파킹 통장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비 통장을 쓰다가 잔고가 모자라다 싶으면 파킹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고 있죠.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경우 선급금(8장 참고)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가서 쓰거나 충전할 때 봅니다. 보통예금보다는 좀 덜 자주 보는 계정과목이죠.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 매일 보는 계정과목에 미지급금도 포함되겠네요. 사용할 때마다 미지급금(12장 참고)이 늘어나고, 추후 대금 결제할 때 보통예금과 함께 줄어들 겁니다.

3. 일이 생길 때 보는 곳 — 이자 · 배당 · 원리금 상환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 등입니다.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처음 가입하고 만기 때 해지 및 이자를 받는 때 말고는 거의 들여다볼 일이 없어요. 장기금융상품은 회계연도 말 기준, 만기 1년 이상 남은 상품입니다. 저희 가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현재 유일하네요.

장기투자증권은 투자주식 계좌 잔액입니다. 해당 계좌 예수금에 돈을 넣거나 뺄 때, 혹은 배당 들어올 때 말고는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어요.

장기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입니다.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때(10장 참고) 들여다보고 입력합니다.

---

4. 연말에 다 보는 곳 — 자산, 부채 전체

연말에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봅니다.

- 매일 보는 곳은 잔액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만약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들어온 장기금융상품이 있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유동성 대체를 해줍니다.
- 장기투자증권(15장 참고)은 증권계좌가 장부금액 대비 얼마나 불어났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기록합니다.
- 투자부동산은 순실현가능가치(14장 참고) 금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기록합니다.
- 장단기차입금은 은행의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그 밖에 나머지 계정과목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딱히 손볼 데가 없어요.

---

5. 그리고 순자산

연말에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그리고 순자산을 봅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순자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보고 한 해의 소비, 저축, 투자를 평가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록이 쌓인 만큼만 보여 줍니다. 부부노트에 이번 달 말 잔액부터 적어 두면, 내년 이맘때는 한 해 동안 순자산이 얼마나 자랐는지 볼 수 있어요.

18장. 복식부기 가계부 순자산 — 통장 잔고가 아니라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번 것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내가 통장 잔고가 줄었는데 왜 순이익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이 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

1. 통장 잔액의 증감과 순자산의 증감

저희 부부는 지역상품권을 선급금(8장 참고)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0% 할인되는 상품권을 20만 원어치 사는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죠.

> (차) 선급금(XX지역상품권) 18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180,000
> (차) 선급금(XX지역상품권) 20,000 / (대) 기타수익 20,000

은행 통장은 18만 원만큼 줄었지만 지역상품권이 20만 원만큼 늘어나 순자산은 2만 원 늘어났습니다. 순손익은 2만 원 발생했고요.

---

2. 순자산의 증감 = 순손익

순자산의 증감은 순손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위 회계처리를 다시 볼까요?

> (차) 선급금(XX지역상품권) 180,000 / (대) 보통예금(OO은행) 180,000

첫 번째 줄은 어느 한 자산이 줄어들고 다른 자산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결국 자산과 자산끼리 맞바꾸거나,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래는 순자산(자산 - 부채)에도, 순손익(수익 -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차) 선급금(XX지역상품권) 20,000 / (대) 기타수익 20,000

두 번째 줄은 자산이 늘어나고 수익 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자산(자산 - 부채)이 늘어나고 순손익(수익 - 비용)도 발생했죠. 이렇듯,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에서 순자산 변동과 순손익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개들을 한 달간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는 한 달간의 수익과 비용을 카테고리별로 보여주고 가장 아래쪽에 순손익을 보여줍니다. 이때 순손익은 재무상태표에서 한 달간의 순자산 변동액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

3. 그래서 볼 곳은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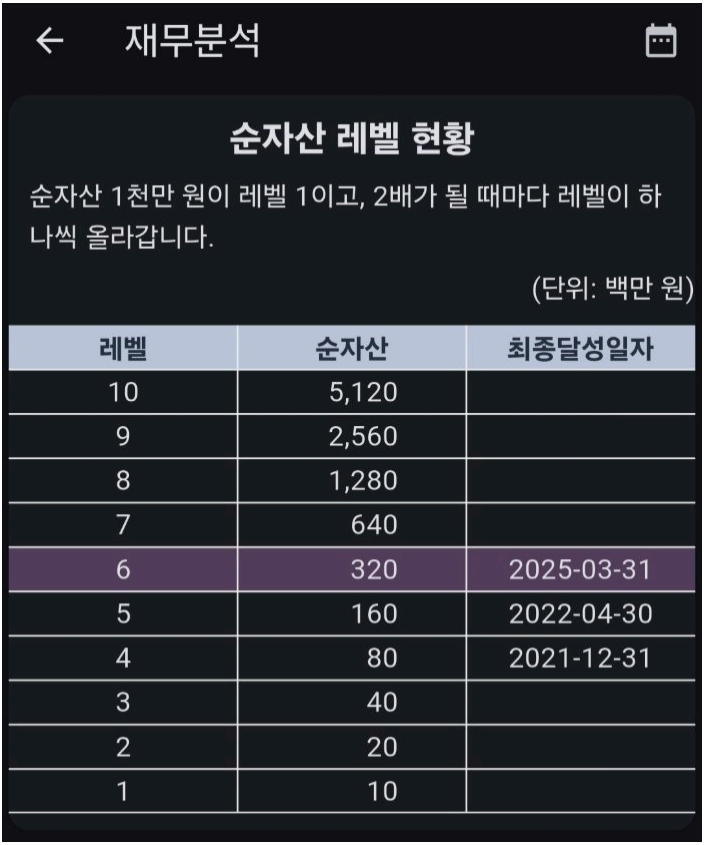
우리의 자산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있죠. 신용카드 미지급금 같은 부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계의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계의 부가 증가했는지 여부는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의 증감 또는 손익계산서상 순손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앱에서 보기

부부노트에서는 순자산 레벨과 순자산 증감 현황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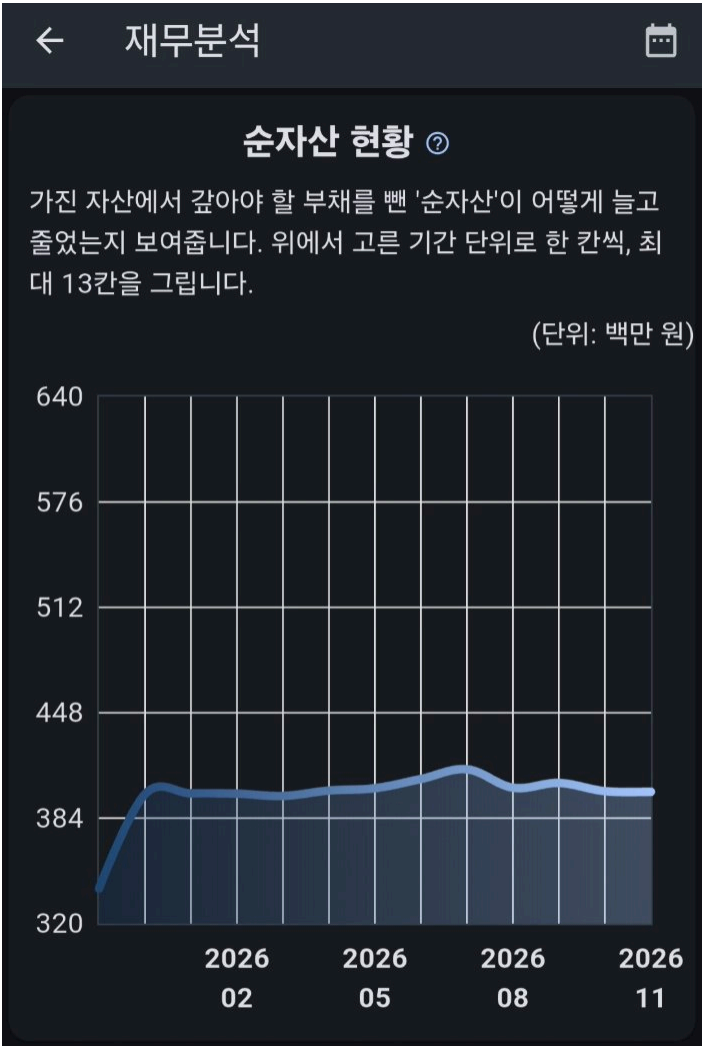


순자산 레벨 현황

순자산 1천만 원이 레벨 1이고, 2배가 될 때마다 레벨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단위: 백만 원)

레벨	순자산	최종달성일자
10	5,120	
9	2,560	
8	1,280	
7	640	
6	320	2025-03-31
5	160	2022-04-30
4	80	2021-12-31
3	40	
2	20	
1	10	


재무분석
순자산 현황
가진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보여줍니다. 위에서 고른 기간 단위로 한 칸씩, 최대 13칸을 그립니다.
(단위: 백만 원)
640
576
512
448
384
320
2026 02
2026 05
2026 08
2026 11